소망을 나누는 마음

202401

2024

겨울 신앙 강좌

강좌 세부 사항 안내

일자	강사	주제
1/12(금)	**주요한** 목사	성경 번역의 역사
1/19(금)	**류헌조** 목사	기독교 종말론의 주요 주제들
1/26(금)	**한정운** 목사	성경과 재물
2/2(금)	**정제헌** 목사	기독교 – 이슬람 관계의 역사적 이해
2/16(금)	**김영규** 목사	죽음에 대하여

장소 : 선교관 2층 제1예배실

※ 2/9(금)은 설 연휴입니다.

소망교회
THE SO-MANG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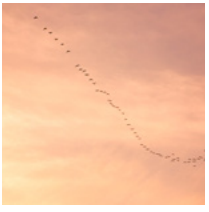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202401

© 2024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묵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CONTENTS

January | 2024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조건 없는 사랑 안으로 4

깊어지는 영성
오시기로 한 약속 안에서 | 김경진 6

묵상에 붙임
하나님께 더 가까이 | L. B. 카우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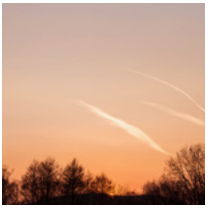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역대하 16

1월 본문
역대하·예레미야 22

1주(1/1) | 2주(1/8) | 3주(1/15) | 4주(1/22) | 5주(1/29)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몽골에 심기는 씨앗 | 윤준호 · 김지선 52

소망사랑방
다시, 소망으로 | 최민영 90

신앙과 앎
우주, 하나님의 창조 | 김경래 134

공간공감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 홍성찬 174

이달의 기도
눈을 들어 198

문화읽기
53회 메시아 연주회 의미와 후기 | 이원유 200

소망마당
모든 것 위에 사랑을 | 이현승 204

예배와 선교
안성 매산교회를 다녀와서 | 백순권 208

마음의 창
신뢰와 결단 | 윤환 212

그림묵상
예수님과 어린 양 | 이호연 216

예배자의 길
1월 우리의 고백 | 송미란 · 이수아 · 예배부 꽃 봉사회 218

가정탐구
가정이 희망입니다 | 홍인종 222

일과 영성
땀의 가치 | 방선기 226

소망뉴스
12월 소식 230

조건 없는 사랑 안으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조건적이며 이기적입니다.
별로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못된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을 믿으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기로 한 약속 안에서

글 **김경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이 결산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달란트 비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재능대로 소유를 맡깁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묻어 둡니다. 한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다가 마침내 돌아와서는 결산을 시작합니다. 각각 두 배의 이윤을 남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반면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에게는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나누어 준 이유를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 종종 그러하였습니다. 여기서 달란트가 가진 '다양한' 가치에 주목해 본다면 어떨까요? 주인이 종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한 것을 주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의 가치는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장사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의 중심에는 누가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했는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종들이 어떠하였습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장사를 하였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고 맙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인이 돌아옵니다. 달란트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 둔 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이 달란트를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주인은 이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재화를 땅에 묻어 둠으로써 시간을 낭비했고, 시간에 이룰 만한 엄청난 재화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날린 것입니다.

물론 그가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잠도 자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시간이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종에게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그는 주인을 불합리한 존재,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탐하고 이익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받을 화만은 면하자는 심정이었겠죠. 본전만이라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이 큰 이익을 얻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막대한 재화를요. 실상 주인이 종에게 준 것은 '신뢰'였습니다. 주인은 세 종 모두를 신뢰하였고, 평생에 일해야 벌 수 있는 달란트를 재화로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여 준 신뢰에 대하여 충성으로 보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는 일과 동시에 주인의 모험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주인에게 종이 보여 줄 것은 충성입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할 일이자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회,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였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글 L. B. 카우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_호세아 14:5

이슬은 신선함의 근원입니다. 자연의 공급원으로 대지의 얼굴에 생기를 부여합니다.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이슬이 없다면 식물이 죽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빈번히 언급되며 영적인 활력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슬의 생동력 혹은 새로움이라는 가치입니다.

자연이 이슬에 젖어 새롭듯,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5에서도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언급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삶에 내리는 거룩한 이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활력과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슬을 맞지 못해서 마르고 시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종일토록 먹지 않고 일하려는 노동자의 어리석음은 알면서도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 섬기려는 종의 어리석음은 왜 모르는지요? 어쩌다 가끔씩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롭고 활기 넘치는 거룩한 삶과 피곤하고 지친 삶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요와 침묵의 시간에 이슬이 내립니다. 나뭇잎과 풀들이 정지하듯 움직임을 멈추는 밤에 식물은 숨구멍을 열어 새롭고 활기 넘치는 이슬을 받습니다. 영적인 이슬은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 옵니다. 그분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십시오. 서두르면 이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잠겼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그분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한 후에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과 새 힘을 느끼며 다음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열기나 바람이 있는 동안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기온은 떨어져야 하고 바람은 그쳐야 하며, 대기는 서늘하고 평정한 상태가 되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이슬이 되어 꽃과 나무를 적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지 상태에 이르러야 그분의 은혜로 안식과 새로움을 이슬처럼 맞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고요한 이슬 내려
우리의 분요함을 멈추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소요 가라앉히사
정연한 삶으로,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의 아름다움 고백하게 하소서.

당신의 서늘한 향유 바르시어
격동하는 욕망 식히소서.
감각을 다스려 그 고통 멈추게 하소서.
지진과 바람과 불을 뚫고 말씀하소서.
작고 세미한 평화의 음성이여!

- L. B. 카우만『하나님께 더 가까이』(복 있는 사람, 2021) 61~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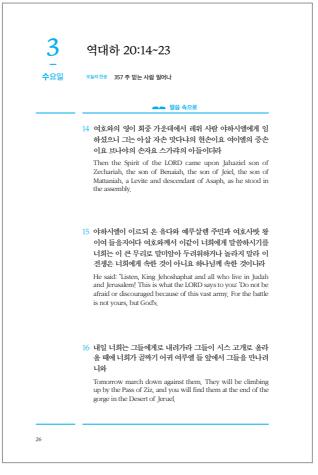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3
수요일

역대하 20:14~23

보물찾기 한 줄 357 주 없는 사람 찾아나

말씀 속으로

14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맛다니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ahaziel son of Zechariah, the son of Benaiah, the son of Jeiel, the son of Mattaniah, a Levite and descendant of Asaph, as he stood in the assembly.

15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e said: "Listen, King Jehoshaphat and all who live in Judah and Jerusal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you: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because of this vast army.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16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니라

Tomorrow march down against them. They will be climbing up by the Pass of Ziz, and you will find them at the end of the gorge in the Desert of Jeruel.

26

1단계 :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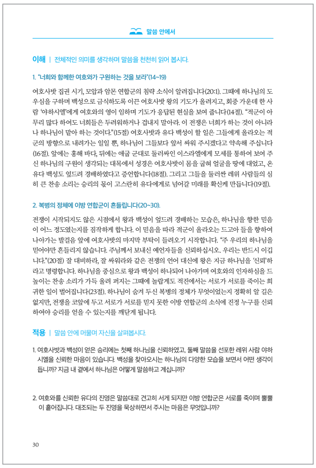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묵상집에 있는 《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14~19)

여호사밧 집권 시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략 소식이 알려집니다(20:1).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백성으로 금식하도록 이끈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올려지고, 회중 가운데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기도가 응답된 현실을 보여 줍니다(14절).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15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할 일은 그들에게 올라오는 적군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일일 뿐,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16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보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되는 대목에서 성경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고, 온 유다 백성도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증언합니다(18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레위 사람들의 심히 큰 찬송 소리는 승리의 몫이 고스란히 유다에게로 넘어갈 미래를 확신케 만듭니다(19절).

2. 복병의 정체에 이방 연합군이 흔들립니다(20~30).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왕과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적군이 올라오는 드고아 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 여호사밧의 마지막 부탁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20절) 잘 대비하라, 잘 싸워라와 같은 전쟁의 언어 대신에 왕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과 백성이 하나되어 나아가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드높이는 찬송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그때에 놀랍게도 적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23절). 하나님이 숨겨 두신 복병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전쟁을 코앞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이방 연합군의 소식에 진정 누구를 신뢰하여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여호사밧과 백성이 얻은 승리에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둘째 말씀을 선포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신뢰한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 여호와를 신뢰한 유다의 진영은 말씀대로 견고히 서게 되지만 이방 연합군은 서로를 죽이며 뿔뿔이 흩어집니다. 대조되는 두 진영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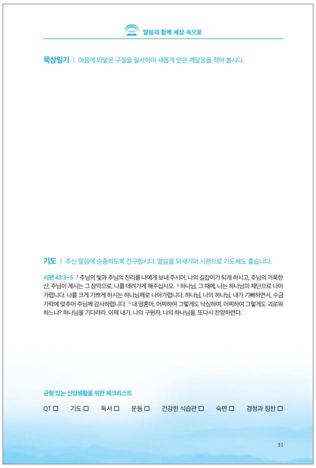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3:3~5 [3]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 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4] 하나님, 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5]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1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역대하(21~29장)

해가 뜨고 진다. 하루가 시작하고 저문다.
밤이 깊어지고 다시, 동이 튼다.

시간이 모여 날이 되고, 날이 모여 절기가 되고,
절기가 모여 해가 되고, 해가 모여 역사가 완성된다.

그 사이 변화될 것은 무엇이고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시간의 구속 아래 놓인 피조물이라면 응당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하나님만이 시간과 역사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만이 시간과 역사를 구원하신다.

유다의 숱한 왕들이 이 진리를 저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느라 골몰한다.
여호람의 나라, 아하시야의 나라, 요아스의 나라, 여호야다의 나라,
아마샤의 나라, 웃시야의 나라, 요담의 나라, 아하스의 나라, 히스기야의 나라 …
물론 아홉 왕의 역사가 동일하지만은 않았다.
아비가 다르고, 어미가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딸이 다르고, 사위가 다르다.
빛이 있다가도 어둠이 스며들고, 순종하다가도 교만해진다.
마음은 온전한데 땅에는 산당이 보란듯이 서 있다.

그런데 역사의 굴곡진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말씀을 전한다.
나라의 기초석을 들여다보고 '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는다.
통치 이념이나 질서를 새롭게 하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는 필히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왕과 백성이 힘써 사모할 일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라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그분이 유다를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을 시간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역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그 자손을 너머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에게 주어진다.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이 모두에게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히 비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평화이시다.

2024년이 다시, 열린다.
지금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월)	신년예배	
2(화)	사도행전 16:25~34 | 온가족 새벽기도	
3(수)	역대하 20:14~23	여호사밧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4(목)	20:24~37	여호사밧에 관한 평가
5(금)	21:1~10	유다 왕 여호람 역사 上
6(토)	예레미야 3:1~18	유다의 음란과 행악
8~13일 주간		
8(월)	예레미야 3:19~4:4	이스라엘의 배역과 회개를 요청하시는 말씀
9(화)	역대하 21:11~20	유다 왕 여호람 역사 下
10(수)	22:1~12	유다 왕 아하시야 역사
11(목)	23:1~15	아달랴에 대한 반역
12(금)	23:16~21	여호야다의 개혁
13(토)	예레미야 4:5~18	바벨론 침략을 예고하시는 말씀
15~20일 주간		
15(월)	예레미야 4:19~31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
16(화)	역대하 24:1~14	유다 왕 요아스의 역사 上
17(수)	24:15~27	유다 왕 요아스의 역사 下
18(목)	25:1~16	유다 왕 아마샤의 역사 上
19(금)	25:17~28	유다 왕 아마샤의 역사 下
20(토)	예레미야 5:1~19	예루살렘을 향하신 심판의 말씀
22~27일 주간		
22(월)	예레미야 5:20~31	거짓 선지자를 향하신 책망의 말씀
23(화)	역대하 26:1~23	유다 왕 웃시야의 역사
24(수)	27:1~9	유다 왕 요담의 역사
25(목)	28:1~15	유다 왕 아하스의 역사 上
26(금)	28:16~27	유다 왕 아하스의 역사 下
27(토)	예레미야 6:1~15	벌받을 성 예루살렘
29~31일 주간		
29(월)	예레미야 6:16~30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한 백성
30(화)	역대하 29:1~19	유다 왕 히스기야의 역사 上
31(수)	29:20~36	유다 왕 히스기야의 역사 下

1

January 2024

SUN	MON	TUE	WED
	1 신정 신년예배	2 온가족 새벽기도회	3
7	8	9	10
14	15	16	17 제직수련회 권사회 월례회
21	22	23	24
28	29	30	31

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THU	FRI	SAT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1
—
월요일
신정

신년예배 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2
—
화요일

사도행전 16:25~34

온가족 새벽기도회

오늘의 찬송 550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말씀 속으로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Suddenly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t once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body's chains came loose.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The jailer woke up, and when he saw the prison doors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because he thought the prisoners had escaped.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But Paul shouted, “Don'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rushed in and fell trembling before Paul and Silas.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He then brought them out and aske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 you and your household.”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Then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to all the others in his house.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At that hour of the night the jailer took them and washed their wounds; then immediately he and all his family were baptized.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The jailer brought them into his house and set a meal before them; he was filled with joy because he had come to believe in God - he and his whole family.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8:1~6 [1]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2]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4]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5]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6] 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깃들기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 — 수요일

역대하 20:14~23

오늘의 찬송 35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말씀 속으로

14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ahaziel son of Zechariah, the son of Benaiah, the son of Jeiel, the son of Mattaniah, a Levite and descendant of Asaph, as he stood in the assembly.

15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e said: "Listen, King Jehoshaphat and all who live in Judah and Jerusal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you: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because of this vast army.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16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Tomorrow march down against them. They will be climbing up by the Pass of Ziz, and you will find them at the end of the gorge in the Desert of Jeruel.

17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You will not have to fight this battle. Take up your positions; stand firm and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give you, O Judah and Jerusalem.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Go out to face them tomorrow, and the LORD will be with you.'"

18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Jehoshaphat bowe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all the people of Judah and Jerusalem fell down in worship before the LORD.

19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Then some Levites from the Kohathites and Korahites stood up and prais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ith very loud voice.

20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Early in the morning they left for the Desert of Tekoa. As they set out, Jehoshaphat stood and said, "Listen to me, Judah and people of Jerusalem! Have faith in the LORD your God and you will be upheld; have faith in his prophets and you will be successful."

3
—
수

21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After consulting the people, Jehoshaphat appointed men to sing to the LORD and to praise him for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as they went out at the head of the army, saying: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the LORD set ambushes against the men of Ammon and Moab and Mount Seir who were invading Judah, and they were defeated.

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The men of Ammon and Moab rose up against the men from Mount Seir to destroy and annihilate them. After they finished slaughtering the men from Seir, they helped to destroy one anoth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14~19)

여호사밧 집권 시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략 소식이 알려집니다(20:1).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백성으로 금식하도록 이끈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올려지고, 회중 가운데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기도가 응답된 현실을 보여 줍니다(14절).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15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할 일은 그들에게 올라오는 적군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일일 뿐,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16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보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되는 대목에서 성경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고, 온 유다 백성도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증언합니다(18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레위 사람들의 심히 큰 찬송 소리는 승리의 몫이 고스란히 유다에게로 넘어갈 미래를 확신케 만듭니다(19절).

2. 복병의 정체에 이방 연합군이 흔들립니다(20~30).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왕과 백성이 엎드려 경배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적군이 올라오는 드고아 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 여호사밧의 마지막 부탁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20절) 잘 대비하라, 잘 싸워라와 같은 전쟁의 언어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과 백성이 하나되어 나아가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드높이는 찬송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그날에 놀랍게도 적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희귀한 일이 벌어집니다(23절). 하나님이 숨겨 두신 복병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전쟁을 코앞에 두고 서로를 믿지 못한 이방 연합군의 소식에 진정 누구를 신뢰하여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여호사밧과 백성이 얻은 승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포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신뢰한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 여호와를 신뢰한 유다의 진영은 말씀대로 견고히 서지만 이방 연합군은 서로를 죽이며 뿔뿔이 흩어집니다. 대조되는 두 진영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3:3~5 3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 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4 하나님, 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5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4 — 목요일

역대하 20:24~37

오늘의 찬송 486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말씀 속으로

24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When the men of Judah came to the place that overlooks the desert and looked toward the vast army, they saw only dead bodies lying on the ground; no one had escaped.

25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So Jehoshaphat and his men went to carry off their plunder, and they found among them a great amount of equipment and clothing and also articles of value - more than they could take away. There was so much plunder that it took three days to collect it.

26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On the fourth day they assembled in the Valley of Beracah, where they praised the LORD. This is why it is called the Valley of Beracah to this day.

27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Then, led by Jehoshaphat, all the men of Judah and Jerusalem returned joyfully to Jerusalem, for the LORD had given them cause to rejoice over their enemies.

28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They entered Jerusalem and went to the temple of the LORD with harps and lutes and trumpets.

29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The fear of God came upon all the kingdoms of the countries when they heard how the LORD had fought against the enemies of Israel.

30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And the kingdom of Jehoshaphat was at peace, for his God had given him rest on every side.

31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삼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So Jehoshaphat reigned over Judah. He was thir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of Judah,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enty-five years. His mother's name was Azubah daughter of Shilhi.

20:26 브라가
송축

4
—
목

32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He walked in the ways of his father Asa and did not stray from them;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33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and the people still had not set their hearts on the God of their fathers.

34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The other events of Jehoshaphat'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are written in the annals of Jehu son of Hanani, which are recorded in the book of the kings of Israel.

35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Later, Jehoshaphat king of Judah made an alliance with Ahaziah king of Israel, who was guilty of wickedness.

36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He agreed with him to construct a fleet of trading ships. After these were built at Ezion Geber,

37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Eliezer son of Dodavahu of Mareshah prophesied against Jehoshaphat, saying, "Because you have made an alliance with Ahaziah, the LORD will destroy what you have made." The ships were wrecked and were not able to set sail to trad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24~30).

유다 백성이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진영에는 아군끼리 죽이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겨눈 칼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그들이 싸운 땅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엎드러진 시체로 빼곡하기만 합니다(24절). 그런데 모압과 암몬에게는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그곳이 여호사밧과 백성이 들어서는 순간에 '브라가 골짜기' 곧 '송축의 골짜기'라고 명명됩니다(26절). 완전히 패배하여 상처만이 남은 적군의 진영에서 유다 왕과 백성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왔고,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노래 소리가 가득합니다(27~28절). 그러나 그들에게 안겨진 승리는 여호사밧과 백성끼리 자축하고 경배하는 기쁨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손에 쥐어진 승리는 여호사밧과 백성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 나라의 모습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29절). 이방 나라가 유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사방에서 평강을 얻게 된 여호사밧 나라는, 승리가 가리키는 근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가르쳐 줍니다(30절).

2. 여호사밧에 관한 평가가 기록됩니다(30~37).

17장부터 무려 네 장에 걸쳐 여호사밧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말씀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통치가 머무르는 땅에는 여전히 산당이 존재하였다고 밝힙니다(32~33절). 왕의 마음이 굳세지 못하였으니 백성의 마음에 두 갈래 길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였을 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 전기를 통하여 한 사람이 한마음을 품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역으로 그만큼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듯 본 단락은 송축의 골짜기를 통과한 여호사밧의 행적 뒤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야와 교제한 사실을 기록합니다(35절). 아합과의 도모를 연상시키는 시점에서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의 예언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37절)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고자 아하시야를 붙잡은 여호사밧 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유다의 역사가 다시 나아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송축의 골짜기를 허락하신 은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쪼개시고 역사를 새롭게 이어 가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2. 왕의 역사 속에서 인간 안에 난 두 갈래의 길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8:1~5 [1]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2]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뭇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3]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4]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5]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5 — 금요일

역대하 21:1~10

오늘의 찬송 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말씀 속으로

1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Then Jehoshaphat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with them in the City of David. And Jehoram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2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댜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Jehoram's brothers, the sons of Jehoshaphat, were Azariah, Jehiel, Zechariah, Azariahu, Michael and Shephatiah. All these were sons of Jehoshaphat king of Israel.

3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Their father had given them many gifts of silver and gold and articles of value, as well as fortified cities in Judah, but he had given the kingdom to Jehoram because he was his firstborn son.

4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When Jehoram established himself firmly over his father's kingdom, he put all his brothers to the sword along with some of the princes of Israel.

5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삼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니라

Jehoram was thirty-two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ight years.

6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He walked in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as the house of Ahab had done, for he married a daughter of Ahab.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7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Nevertheless, because of the covenant the LORD had made with David, the LORD was not willing to destroy the house of David. He had promised to maintain a lamp for hi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5
—
금

8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In the time of Jehoram, Edom rebelled against Judah and set up its own king.

9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So Jehoram went there with his officers and all his chariots. The Edomites surrounded him and his chariot commanders, but he rose up and broke through by night.

10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립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 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To this day Edom has been in rebellion against Judah. Libnah revolted at the same time, because Jehoram had forsaken the LORD, the God of his father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1~7).

여호사밧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아들 여호람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오릅니다(1절). 여호사밧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가 계승됩니다(2~3절). 그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서른 둘,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주요 방백을 죽이는 사건으로부터 열린다는 점에서 여호람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암묵적으로 엿보게 됩니다(4절). 그 이유에 관하여 역대기 저자는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맺은 혼인 관계를 듭니다(6절).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통하여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을 너머 유다 땅에도 스며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람과 아달랴의 삶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비추어 줍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7절) 여호람의 악한 통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2. 에돔과 립나가 여호람을 배반합니다(8~10).

칼로 형제와 주요 관리를 죽이는 사건으로 소개되는 여호람의 나라. 성경은 그의 통치 아래 어두워져 가는 남 유다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트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체자요, 언약을 맹세하신 하나님이 악한 길로 접어드는 왕에게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며 옳은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이 본 단락에는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에돔과 립나를 향하여 유독 '배반'이라는 단어가 즐겨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호람과는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하던 그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경험을 통해 유다 왕이 진정 누구를 배반하고 있었는지를 반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10절)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대가로 여호람은 믿었던 에돔과 립나로부터 배반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을 죽인 사건에서 여호람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의 칼이 겨눈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며 10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날 때, 땅에서 맺어 가는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나의 손이 등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지 혹은 에돔과 립나를 붙잡는지를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8:25~28 25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27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28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6 — 토요일

예레미야 3:1~18

오늘의 찬송 259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말씀 속으로

1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f a man divorces his wife and she leaves him and marries another man, should he return to her again? Would not the land be completely defiled? But you have lived as a prostitute with many lovers - would you now return to me?" declares the LORD.

2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Look up to the barren heights and see. Is there any place where you have not been ravished? By the roadside you sat waiting for lovers, sat like a nomad in the desert. You have defiled the land with your prostitution and wickedness.

3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Therefore the showers have been withheld, and no spring rains have fallen. Yet you have the brazen look of a prostitute; you refuse to blush with shame.

4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Have you not just called to me: 'My Father, my friend from my youth,

5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will you always be angry? Will your wrath continue forever?' This is how you talk, but you do all the evil you can."

6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During the reign of King Josiah, the LORD said to me, "Have you seen what faithless Israel has done? She has gone up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and has committed adultery there.

7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I thought that after she had done all this she would return to me but she did not, and her unfaithful sister Judah saw it.

3:1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3:4 보호자
동무

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I gave faithless Israel her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t her away because of all her adulteries. Yet I saw that her unfaithful sister Judah had no fear; she also went out and committed adultery.

9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Because Israel's immorality mattered so little to her, she defiled the land and committed adultery with stone and wood.

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n spite of all this, her unfaithful sister Judah did not return to me with all her heart, but only in pretense," declares the LORD.

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The LORD said to me, "Faithless Israel is more righteous than unfaithful Judah.

12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Go, proclaim this message toward the north: 'Return, faithless Israel,' declares the LORD, 'I will frown on you no longer, for I am merciful,'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be angry forever.

13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Only acknowledge your guilt - you have rebelled against the LORD your God, you have scattered your favors to foreign gods under every spreading tree, and have not obeyed me,'" declares the LORD.

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Return, faithless people," declares the LORD, "for I am your husband. I will choose you - one from a town and two from a clan - and bring you to Zion.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Then I will give you shepherds after my own heart, who will lead you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6
—
토

1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In those days, when your numbers have increased greatly in the land," declares the LORD, "men will no longer say,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It will never enter their minds or be remembered; it will not be missed, nor will another one be made.

17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At that time they will call Jerusalem The Throne of the LORD, and all nations will gather in Jerusalem to honor the name of the LORD. No longer will they follow the stubbornness of their evil hearts.

18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In those days the house of Judah will join the house of Israel, and together they will come from a northern land to the land I gave your forefathers as an inheritan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남 유다가 보고 배웁니다(1~10).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알리는 표현이 예레미야 곳곳에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곧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빗대어집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깨어진 부부가 나오며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듯이, 하나님과 유다가 꼭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1~2절). 물론 하나님 편에서 유다의 반역은 분명 진노를 살 만했지만, 그보다 분노하신 건 유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모르는 척 발뺌하며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4~5절). 유다의 완악함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사라진, 그야말로 메마른 땅에 묘사되는 듯도 합니다(3절). 그렇다면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이들이 사랑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지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은 유다가 직접 눈으로 '본' 행위를 기술하며 자매 북 이스라엘의 배반을 보고 또 본 남 유다가 결국엔 동일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경책합니다. 악을 보인 북 이스라엘, 악을 보고 따른 남 유다. 누가 더 악하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하나님은 생명이시라!(11~18)

하나님의 눈동자에서는 북 이스라엘이나 남 유다의 현실이 비슷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북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고 그 길로 자처하여 들어간 남 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데에는 그만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며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연합시켜 주실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11절) 문자 그대로 죄의 경중에 있어서 북 이스라엘이 나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배역하고 배반하는 백성이지만, 인생과 달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 주십니다(14절).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고, 오직 생명만이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유다는 북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결단할 때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4:30~35 [30]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31]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32]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33]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34]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35]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몽골에 심기는 씨앗

글 **윤준호·김지선** (몽골 선교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가 사는 몽골은 7개월간 추운 겨울을 가지고 있는 나라, 눈이 한 번 오면 지방 사람들은 집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 서군·경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애쓰는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도 200여 명이 집으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 8명이 동사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며 지배한 나라이지만 지금은 두 번째로 공산화되어 70년간 한 명의 크리스천도 없었던 나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 드렸다고 하지만 기독교를 배척하고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전도하거나 현지인 교회에 외국인이 출석하면 추방시키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하지만 이런 몽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된 몽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현재 몽골은 약 300가정 정도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고 이들 중 한국선교사는 약 240가정 정도 됩니다. 3개의 선교대학교와 5개의 기독교 초·중·고등학교가 운영 중이며 이곳에 있는 교육선교사만 100가정이 넘습니다. 몽골의 기독교 역사는 징기스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850년이 넘지만 공산주의 때는 종교 말살 정책으로 한 명의 성도도 찾을 수 없었으며, 1990년 한국과 수교 이후 1993년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시면서 몽골의 기독교 전파는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몽골에는 650여 개(수도에 300개 교회, 지방에 350개 교회) 교회가 예배 중이며 전체 복음화는 전 국민의 2% 정도입니다. 그리고 4개의 신학교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지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는 1993년 국립대학교의 한 강의실을 빌려서 한국어 어학원으로 시작된 학교이며 지금은 몽골 사립대학교 중 가장 좋은 학교로 커 가는 몽골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약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현재까지 약 13,000명 이상의 대학교 졸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대학원 이상을 수학하거나 졸업한 동문이 약 1,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몽골의 교회 중에 60%, 약 400개 이상의 교회에 목사님 그리고 지도자, 사역자로 저희 졸업생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5개 단과대학과 17개 세부학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외국인 사역자는 21가정, 28명의 선생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 공동체에서 학교 외에 사역하는 14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전도한 학생들을 동아리나 1대1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몽골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중국, 북한을 변화시키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아랍권 구 러시아 영토와 중국 또는 북한에 대해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가는 것에 우리보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선교사에게 전도받은 1세대 몽골 성도라는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본인들도 주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 중 국가 기독교 인구수 비례 선교사 파송 숫자 세계 1위가 몽골입니다. 이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시길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 학교 인증 평가를 교육부로부터 잘 받을 수 있도록
- 모든 몽골 사역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영성,영원)이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 재정으로 아이들의 학업이 멈추지 않도록
- 주님 보시기에 진짜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7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7~13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시 50:2)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 월요일

예레미야 3:19~4:4

오늘의 찬송 216 성자의 귀한 몸

말씀 속으로

19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I myself said, "How gladly would I treat you like sons and give you a desirable land, the most beautiful inheritance of any nation. I thought you would call me 'Father' and not turn away from following me.

20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ut like a woman unfaithful to her husband, so you have been unfaithful to me, O house of Israel," declares the LORD.

21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A cry is heard on the barren heights, the weeping and pleading of the people of Israel, because they have perverted their ways and have forgotten the LORD their God.

22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Return, faithless people; I will cure you of backsliding." "Yes, we will come to you, for you are the LORD our God.

23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Surely the idolatrous commotion on the hills and mountains is a deception; surely in the LORD our God is the salvation of Israel.

24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From our youth shameful gods have consumed the fruits of our fathers' labor - their flocks and herds, their sons and daughters.

25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Let us lie down in our shame, and let our disgrace cover us.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our God, both we and our fathers; from our youth till this day we have not obeyed the LORD our God."

3:19 너희가
네가

8
—
월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If you will return, O Israel, return to me," declares the LORD. "If you put your detestable idols out of my sight and no longer go astray,

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and if in a truthful, just and righteous way you swear, 'As surely as the LORD lives,' then the nations will be blessed by him and in him they will glory."

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the men of Judah and to Jerusalem: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do not sow among thorns.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Circumcise yourselves to the LORD, circumcise your hearts, you men of Judah and people of Jerusalem, or my wrath will break out and burn like fire because of the evil you have done - burn with no one to quench it."

4:2 나로
히브리어) '그로'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의 마음이 참으로 냉대합니다(19~25).

죄를 짓고도 시치미를 떼며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은 무엇이 좋아서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19절) 품을 떠난 자식이지만 기필코 잃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렬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신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유다의 마음은 차가워도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20절) 배역한 자식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고쳐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함께 선포됩니다(22절).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알려졌으나 여전히 작은 산, 큰 산을 이리저리 헤매며 떠도는 양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3절). 진노 중에라도 구원을 받으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축복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25절).

2. 죽을 때 살아납니다(1~4).

유다가 이미 도망쳤고, 그 시기도 오랜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까마득하게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내게로',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이 돌이킬 방향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스스로 앞에 둔 가증한 우상을 내버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돌이킴'이란 결코 일시적인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묵은 땅을 귀경하듯이 마음에 켜켜이 쌓인 가죽을 베어 버리는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4절).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경험 없이 우리 모두는 살아날 수 없고, 언제든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을 파괴하고, 뽑고, 멸한 후에 다시 심고 건설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악행이 차고 넘치다 못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 유다 백성을 보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귀경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잠잠히 돌아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버지요, 남편과도 같은 하나님에게 냉대한 유다 백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베어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안에 끊어내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9:7~9,14 [7]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8]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14] 나의 반석이시요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9 — 화요일

역대하 21:11~20

오늘의 찬송 32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말씀 속으로

11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He had also built high places on the hills of Judah and had caused the people of Jerusalem to prostitute themselves and had led Judah astray.

12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Jehoram received a letter from Elijah the prophet, which sai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David, says: 'You have not walked in the ways of your father Jehoshaphat or of Asa king of Judah.

13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But you have walked in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and you have led Jud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to prostitute themselves, just as the house of Ahab did. You have also murdered your own brothers, members of your father's house, men who were better than you.

14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So now the LORD is about to strike your people, your sons, your wives and everything that is yours, with a heavy blow.

15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You yourself will be very ill with a lingering disease of the bowels, until the disease causes your bowels to come out.'"

16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The LORD aroused against Jehoram the hostility of the Philistines and of the Arabs who lived near the Cushites.

17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They attacked Judah, invaded it and carried off all the goods found in the king's palace, together with his sons and wives. Not a son was left to him except Ahaziah, the youngest.

18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After all this, the LORD afflicted Jehoram with an incurable disease of the bowels.

19 여러 날 후 이 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 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In the course of time, at the end of the second year, his bowels came out because of the disease, and he died in great pain. His people made no fire in his honor, as they had for his fathers.

20 여호람이 삼십이 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Jehoram was thirty-two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ight years. He passed away, to no one's regret,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David, but not in the tombs of the king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경고가 여호람에게 임합니다(11~15).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10절의 평가는 사실상 여호람 일대에 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본단락은 그가 악한 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11절) 학자들 대부분은 그가 아합의 딸 아달랴와의 혼인을 통하여 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들여온 시초의 왕이라는 평가에 있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셨는데, 그 마음이 선지자 엘리야가 작성한 편지 사이로 전달됩니다. "네가 유다 왕 네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네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12~13절) 여호람의 마음이 얼마나 둔감하였으면 새겨진 글을 눈으로 보며 자신이 범한 악행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한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맙니다.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15절)

2.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듭니다(16~20).

하나님이 여호람의 백성, 자녀, 아내, 모든 재물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14절). 보다 끔찍한 사실은 여호람이 모든 이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자 여호람의 나라로 한 발, 한 발 올라오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면서 왕으로서 그가 느꼈을 심정이 어떠했을지 질문하게 됩니다(16~17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참함에 애통해 했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둔한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을지 역대기 저자는 침묵하면서도 모든 이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18절).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병을 몸에 짊어지고 나서야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여호람이 죽은 목숨이고, 죽음을 애도하는 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20절). 혈육의 정을 나눈 아우와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죽이며 시작된 여호람의 나라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처량함으로 끝맺음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백성, 자녀, 아내, 재물‥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병이 든 여호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원하신 것을 고민해 봅시다.

2. 피바람을 일으킨 여호람의 결말을 두고 성경은 곁에 남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반역과 배신으로 점철된 그의 역사가 우상 숭배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가정 안에 새롭게 일어날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1~3,10~12 [1]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2]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3]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10]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12]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0 역대하 22:1~12

수요일

오늘의 찬송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말씀 속으로

1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The people of Jerusalem made Ahaziah, Jehoram's youngest son, king in his place, since the raiders, who came with the Arabs into the camp, had killed all the older sons. So Ahaziah son of Jehoram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Ahaziah was twenty-two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one year. His mother's name was Athaliah, a granddaughter of Omri.

3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He too walked in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for his mother encouraged him in doing wrong.

4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s the house of Ahab had done, for after his father's death they became his advisers, to his undoing.

5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He also followed their counsel when he went with Joram son of Ahab king of Israel to war against Hazael king of Aram at Ramoth Gilead. The Arameans wounded Joram;

6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르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so he returned to Jezreel to recover from the wounds they had inflicted on him at Ramoth in his battle with Hazael king of Aram. Then Ahaziah son of Jehoram king of Judah went down to Jezreel to see Joram son of Ahab because he had been wounded.

7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Through Ahaziah's visit to Joram, God brought about Ahaziah's downfall. When Ahaziah arrived, he went out with Joram to meet Jehu son of Nimshi, whom the LORD had anointed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22:6 아사랴
본 장 1절에는 '아하시야'

10
—
수

8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While Jehu was executing judgment on the house of Ahab, he found the princes of Judah and the sons of Ahaziah's relatives, who had been attending Ahaziah, and he killed them.

9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매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He then went in search of Ahaziah, and his men captured him while he was hiding in Samaria. He was brought to Jehu and put to death. They buried him, for they said, "He was a son of Jehoshaphat, who sought the LORD with all his heart." So there was no one in the house of Ahaziah powerful enough to retain the kingdom.

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When Athaliah the mother of Ahaziah saw that her son was dead, she proceeded to destroy the whole royal family of the house of Judah.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But Jehosheba, the daughter of King Jehoram, took Joash son of Ahaziah and stole him away from among the royal princes who were about to be murdered and put him and his nurse in a bedroom. Because Jehosheba, the daughter of King Jehoram and wife of the priest Jehoiada, was Ahaziah's sister, she hid the child from Athaliah so she could not kill him.

12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He remained hidden with them at the temple of God for six years while Athaliah ruled the la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후의 손에 아하시야가 죽습니다(1~6).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이 한때 아람을 치고자 도모했습니다(18장). 그날에 여호사밧은 큰 구원을 경험하지만, 변장까지 시도한 아합은 무심코 던져진 활에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18:28~34). 두 사람의 결말은 성전과 예배가 중심이 되기보다 사람이 주역이 되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는 듯합니다. 여호람의 아들 중 하나 남은 막내 아들 아하시야의 생존이 알려지면서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한 사건이 언급되는데, 아하시야와 요람이 함께 아람 왕을 치는 과정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4~6절). 그리고 놀랍게도 부상을 입은 요람을 방문하는 아하시야는 해를 입게 됩니다(7절). 역대기 저자는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 길이 하나님 편에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2. 어린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라납니다(7~12).

병이 든 요람과 요람을 찾아간 아하시야. 하나님은 두 사람 사이에 뜻밖에도 예후라는 인물을 개입시키며 두 가문을 처단하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7~9절). 만일에 아하시야가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전쟁 중에 정신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가문에 왕궁을 지킬 만한 자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며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여호람의 아내, 곧 아합의 딸 아달랴에게 넘어간 나라의 소식을 알려 줍니다(10절). 그녀의 손에 유다 왕국이 넘어가자마자 모든 씨가 진멸당하며 잔인한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11절). 아달랴의 어두운 통치가 이어지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며 자라나게 됩니다(12절). 다윗과 그 자손에게는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생명에게서 다시금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람에게 가기 전 아하시야가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였는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앞서는지 돌아봅시다.

2. 요아스를 건져낸 인물은 여호람의 딸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악한 왕 여호람 가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2:25~28 25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26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27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28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1 — 목요일

역대하 23:1~15

오늘의 찬송 524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말씀 속으로

1 제칠 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In the seventh year Jehoiada showed his strength. He made a covenant with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hundred: Azariah son of Jeroham, Ishmael son of Jehohanan, Azariah son of Obed, Maaseiah son of Adaiah, and Elishaphat son of Zicri.

2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They went throughout Judah and gathered the Levites and the heads of Israelite families from all the towns. When they came to Jerusalem,

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the whole assembly made a covenant with the king at the temple of God. Jehoiada said to them, "The king's son shall reign, as the LORD promised concerning the descendants of David.

4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

Now this is what you are to do: A third of you priests and Levites who are going on duty on the Sabbath are to keep watch at the doors,

5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a third of you at the royal palace and a third at the Foundation Gate, and all the other men are to be in the courtyards of the temple of the LORD.

6 제사장들과 수종 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No one is to enter the temple of the LORD except the priests and Levites on duty; they may enter because they are consecrated, but all the other men are to guard what the LORD has assigned to them.

7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The Levites are to station themselves around the king, each man with his weapons in his hand. Anyone who enters the temple must be put to death. Stay close to the king wherever he goes."

11
—
목

8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The Levites and all the men of Judah did just as Jehoiada the priest ordered. Each one took his men - those who were going on duty on the Sabbath and those who were going off duty - for Jehoiada the priest had not released any of the divisions.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Then he gave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hundred the spears and the large and small shields that had belonged to King David and that were in the temple of God.

10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He stationed all the men, each with his weapon in his hand, around the king - near the altar and the temple, from the south side to the north side of the temple.

11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Jehoiada and his sons brought out the king's son and put the crown on him; they presented him with a copy of the covenant and proclaimed him king. They anointed him and shouted, "Long live the king!"

12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When Athaliah heard the noise of the people running and cheering the king, she went to them at the temple of the LORD.

13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She looked, and there was the king, standing by his pillar at the entrance. The officers and the trumpeters were beside the king,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were rejoicing and blowing trumpets, and singers with musical instruments were leading the praises. Then Athaliah tore her robes and shouted, "Treason! Treason!"

14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Jehoiada the priest sent out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hundred, who were in charge of the troops, and said to them: "Bring her out between the ranks and put to the sword anyone who follows her." For the priest had said, "Do not put her to death at the temple of the LORD."

15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So they seized her as she reached the entrance of the Horse Gate on the palace grounds, and there they put her to deat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 땅에 언약식이 세워집니다(1~7).

성경은 요아스를 숨겨 준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제사장이었다고 밝힙니다(22:11). 유다의 악한 왕으로 꼽히는 여호람에게 딸 여호사브앗과 사위 여호야다라는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현실에 결코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낸 6년의 세월이 지나고 제칠 년, 여호야다가 백부장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레위인과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 분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3절)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 지낸 요아스가 제사장에 의해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성전에 함께 모인 레위인과 백성의 모습은 남 유다의 의미가 살아나고 그 땅이 회복될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전으로 왕과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2. 반역자 아달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9~15).

아달랴의 통치 속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언약식은 목숨을 거는 정도의 각오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는 수준의 폭력성을 보인 아달랴를 떠올려 볼 때에 당시의 상황이 어렵지 않게 상상됩니다.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라 일사천리로 마음을 모으는 백부장, 족장, 레위인, 백성은 그녀의 통치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한편으론 제사장을 필두로 한마음이 되는 백성의 연합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남 유다가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남 유다의 의미 곧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에 새롭게 등극하는 왕 요아스에게 면류관이 씌어지고, 율법책이 주어지고,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11절). 어린 왕의 손에 들린 율법책 앞에서 말씀으로 유다를 통치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때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간 아달랴의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15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제사장, 레위인, 백부장, 족장,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연수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부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회복되는 유다 왕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2. 왕궁 말문 어귀에 죽은 아달랴는 북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남 유다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해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결단한 것들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1:5~10 [5]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6]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7] 손수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8]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9]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10]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
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2 역대하 23:16~21

금요일

오늘의 찬송 620 여기에 모인 우리

말씀 속으로

16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Jehoiada then made a covenant that he and the people and the king would be the LORD's people.

17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All the people went to the temple of Baal and tore it down. They smashed the altars and idols and killed Mattan the priest of Baal in front of the altars.

18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Then Jehoiada placed the oversight of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hands of the priests, who were Levites, to whom David had made assignments in the temple, to present the burnt offerings of the LORD a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with rejoicing and singing, as David had ordered.

19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He also stationed doorkeepers at the gates of the LORD's temple so that no one who was in any way unclean might enter.

20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He took with him the commanders of hundreds, the nobles, the rulers of the people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brought the king down from the temple of the LORD. They went into the palace through the Upper Gate and seated the king on the royal throne,

21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rejoiced. And the city was quiet, because Athaliah had been slain with the sw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 땅에 새바람이 일어납니다(16~17).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22장에서 우리는 님시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아합 가문에 내려진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22:7). 열왕기하 기록에 의하면 이후 북 이스라엘 안에는 예후에 의해서 나름대로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새로운 왕 요아스를 선두로 하여 새바람이 이는 남 유다의 현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개혁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예후는 여로보암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신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남 유다의 요아스는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과 형상을 깨트리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근절시키고 있었습니다(17절). 이때에 역대기 저자는 이방 신상과 제사장을 없애는 개혁에 앞서서 요아스와 그의 백성 사이에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선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16절).

2. 요아스가 왕좌에 앉습니다(18~21).

모처럼 유다 땅에 신명이 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남 유다의 왕과 백성 안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남 유다에게는 사실상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모여들자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직분에 따라 번제를 드리며 노래하였고, 문지기는 직분에 따라 부정한 자의 출입을 막았고, 백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리인은 직분에 따라 왕과 백성을 수호하는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18~20절).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요아스는 왕궁에 이르러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보좌에 앉은 어린 왕을 보면서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도성 안에는 평안이 되찾아집니다. 폭력적인 아달랴가 사라지고 일곱 살의 순수한 왕의 등장만으로도 반가웠겠지만, 인간 요아스 너머에 계신 유다의 하나님이 그들 안에 다시 나타나시며 기쁨이 찾아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요아스의 나라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시작됩니다. 피바람으로 시작한 여호람의 나라와 비교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2. 성전에서 왕궁으로 이어지는 배경은 남 유다의 통치 원리를 암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한과 북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남한과 북한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7:2~4,12~14 2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3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4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12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3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14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3 — 토요일

예레미야 4:5~18

오늘의 찬송 522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말씀 속으로

5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Announce in Judah and proclaim in Jerusalem and say: 'Sound the trumpet throughout the land!' Cry aloud and say: 'Gather together! Let us flee to the fortified cities!'

6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Raise the signal to go to Zion! Flee for safety without delay! For I am bringing disaster from the north, even terrible destruction."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A lion has come out of his lair; a destroyer of nations has set out. He has left his place to lay waste your land. Your towns will lie in ruins without inhabitant.

8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베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So put on sackcloth, lament and wail, for the fierce anger of the LORD has not turned away from us.

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the king and the officials will lose heart, the priests will be horrified, and the prophets will be appalled."

10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Then I said, "Ah, Sovereign LORD, how completely you have deceived this people and Jerusalem by saying, 'You will have peace,' when the sword is at our throats."

11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At that time this people and Jerusalem will be told, "A scorching wind from the barren heights in the desert blows toward my people, but not to winnow or cleanse;

4:8 너희에게서
히브리어) '우리에게서'

4:10 내가 이르되
그들이 이르기를

13
—
토

12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a wind too strong for that comes from me. Now I pronounce my judgments against them."

13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Look! He advances like the clouds, his chariots come like a whirlwind, his horses are swifter than eagles. Woe to us! We are ruined!

14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O Jerusalem, wash the evil from your heart and be saved. How long will you harbor wicked thoughts?

15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A voice is announcing from Dan, proclaiming disaster from the hills of Ephraim.

16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Tell this to the nations, proclaim it to Jerusalem: 'A besieging army is coming from a distant land, raising a war cry against the cities of Judah.

17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y surround her like men guarding a field, because she has rebelled against me,'" declares the LORD.

18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Your own conduct and actions have brought this upon you. This is your punishment. How bitter it is! How it pierces to the heart!"

4:12 이보다 더 강한
저기서 강한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의 슬픔은 진짜일까요?(5~10)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유다 지역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주의를 요구하는 다급한 신호가 맴돕니다. 그럼에도 밀림의 왕자라 불리는 사자를 대적할 자가 없듯이, 사자처럼 기세를 들고 일어나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유다의 백성은 황폐해질 성읍의 미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7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후에야 그들 사이에서 굵은 베를 두르며 애곡하는 탄식 소리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못합니다(8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맹렬한 노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차!' 반역의 길을 걸어온 자신의 행보를 돌이키기보다 왕과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가 소스라치게 놀랄 뿐입니다(9절).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10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입니다.

2. 하나님과 유다의 시선이 어긋납니다(11~18).

북에서부터 들이닥치는 강한 바람과 함께 구름같이 몰려오는 병거 떼는 그 움직임이 회오리바람처럼 빠르고, 독수리보다도 재빠릅니다(11~13절). 성경은 바로 이들이 유다를 심판할 바벨론 세력임을 말하여 줍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 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14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어나는 북의 세력인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과 유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의 무게를 여실히 드러내 주지만 정작 유다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엇갈리는 하나님과 유다의 시선이 예레미야서를 통과할수록 자명하게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소리가 19절부터 이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유다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의도를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에 아파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봅시다.

2.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눈이 주님 말씀에 열려 있기를 사모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3:6~8 [6]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7]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8]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다시, 소망으로

글 최민영 (성도)

첫 새신자 교육을 받은 최민영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따라
11월 26일 주일, 하반기 새신자 초청 행사 때 5분 가량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37년 전, 첫 교회로 소망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신 시어머님의 전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30년 정도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둘째 아이가 정신 장애를 겪으며 이리저리 안 좋은 환경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대순진리회, 잡신, 무당, 절 … 등등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제 중심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고,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압구정동 사무실을 가는 중에 책방 앞에 계시는 한 권사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새신자 교육을 잘하는 분을 소개해 달라고요.
그때 이학선 집사님을 소개받았고, 새신자 교육에 임했습니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3.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4. 교회란 무엇인가요?

새신자 4주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뿌리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삶을 돌이키며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매주 예수님의 성품으로 설교해 주시는 김경진 담임목사님,
새신자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부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소망교회 교우분들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14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14~20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시 78:6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5 — 월요일

예레미야 4:19~31

오늘의 찬송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말씀 속으로

19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Oh, my anguish, my anguish! I writhe in pain. Oh, the agony of my heart! My heart pounds within me, I cannot keep silent. For I have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I have heard the battle cry.

20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Disaster follows disaster; the whole land lies in ruins. In an instant my tents are destroyed, my shelter in a moment.

21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How long must I see the battle standard and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My people are fools; they do not know me. They are senseless children; they have no understanding. They are skilled in doing evil; they know not how to do good."

23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I looked at the earth, and it was formless and empty; and at the heavens, and their light was gone.

24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I looked at the mountains, and they were quaking; all the hills were swaying.

25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I looked, and there were no people; every bird in the sky had flown away.

26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I looked, and the fruitful land was a desert; all its towns lay in ruins before the LORD, before his fierce anger.

2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e whole land will be ruined, though I will not destroy it completely.

4:19 슬프고 아프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4:26 좋은 땅
히브리어) '갈멜'

15
—
월

28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Therefore the earth will mourn and the heavens above grow dark, because I have spoken and will not relent, I have decided and will not turn back."

29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At the sound of horsemen and archers every town takes to flight. Some go into the thickets; some climb up among the rocks. All the towns are deserted; no one lives in them.

30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What are you doing, O devastated one? Why dress yourself in scarlet and put on jewels of gold? Why shade your eyes with paint? You adorn yourself in vain. Your lovers despise you; they seek your life.

31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I hear a cry as of a woman in labor, a groan as of one bearing her first child - the cry of the Daughter of Zion gasping for breath, stretching out her hands and saying, "Alas! I am fainting; my life is given over to murderers."

4:30 꾸밀지라도
크게 할지라도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19~22)

심판의 불기둥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유다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4:10).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시고 약속을 어기시며 고통 중에 놓인 백성들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을 자신들의 악행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앞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19절)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읍이 견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너질 성읍의 미래를 내다보며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열방의 손에 침략당하고 폐허의 잔해가 남겨질 상황을 떠올리니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그의 울부짖음은 그 근원이 달라 보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은 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의 무지함이 예레미야 마음을 사무치게 만든 것입니다(22절).

2. 심판 앞에서 땅이 혼돈하고 영혼이 피폐해집니다(23~31).

예레미야의 눈물 사이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한 유다 백성의 영적 실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이 흑암 중에 묻힌 땅에 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 빛이 없는 하늘, 진동하는 산, 요동하는 작은 새들… 흑암의 재앙 아래 놓인 이 땅이 본래는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성읍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성읍을 뽑고 무너트리는 일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진멸하지 않으시는 자비를 발견하게도 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27절)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는 유다 땅에 해산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야 했습니다(31절). 그때에 비로소 백성들은 옷에 두른 붉은 옷과 금장식, 화려한 눈 장식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지만, 후회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소리를 잠재웁니다(28,3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중대한 소명은 백성을 위해 탄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겪었을 그를 떠올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

2.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보여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살아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6:1~6 [1]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2]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3]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4]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6 역대하 24:1~14

화요일

오늘의 찬송 459 누가 주를 따라

말씀 속으로

1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 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Joash was seven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forty years. His mother's name was Zibiah; she was from Beersheba.

2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Joas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years of Jehoiada the priest.

3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Jehoiada chose two wives for him, and he had sons and daughters.

4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Some time later Joash decided to restore the temple of the LORD.

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He called together the priests and Levites and said to them, "Go to the towns of Judah and collect the money due annually from all Israel, to repair the temple of your God. Do it now." But the Levites did not act at once.

6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Therefore the king summoned Jehoiada the chief priest and said to him, "Why haven't you required the Levites to bring in from Judah and Jerusalem the tax imposed by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and by the assembly of Israel for the Tent of the Testimony?"

7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Now the sons of that wicked woman Athaliah had broken into the temple of God and had used even its sacred objects for the Baals.

8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At the king's command, a chest was made and placed outside, at the gate of the temple of the LORD.

16
—
화

9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A proclamation was then issued in Judah and Jerusalem that they should bring to the LORD the tax that Moses the servant of God had required of Israel in the desert.

10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All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brought their contributions gladly, dropping them into the chest until it was full.

11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Whenever the chest was brought in by the Levites to the king's officials and they saw that there was a large amount of money, the royal secretary and the officer of the chief priest would come and empty the chest and carry it back to its place. They did this regularly and collected a great amount of money.

12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The king and Jehoiada gave it to the men who carried out the work required for the temple of the LORD. They hired masons and carpenters to restore the LORD's temple, and also workers in iron and bronze to repair the temple.

13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The men in charge of the work were diligent, and the repairs progressed under them. They rebuilt the temple of God according to its original design and reinforced it.

14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When they had finished, they brought the rest of the money to the king and Jehoiada, and with it were made articles for the LORD's temple: articles for the service and for the burnt offerings, and also dishes and other objects of gold and silver. As long as Jehoiada lived, burnt offerings were presented continually in the temple of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요아스가 성전 보수에 뜻을 둡니다(1~7).

제사장 여호야다의 진두지휘 아래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식을 행하며 조상 모세와 다윗 이래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고합니다. 그 후에야 요아스는 왕궁의 보좌 위에 오르는데 권위를 얻게 된 그가 성전 보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전에 요아스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며 보수세를 거두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빨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히며 그리 순탄치 못한 과정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태를 파악한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책망합니다.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6절)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순간에 뜨거워지기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 사이 아달랴의 아들들은 성전을 부수고 바알 신에게 성물을 바치고 있습니다(7절).

2. 성전 보수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물러납니다(8~14).

여호아댜를 향한 책망과 함께 요아스 왕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이제는 그가 선두에 서며 성전 보수를 책임지는 역할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 문 밖,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며 볼 수 있는 자리에 돈 궤를 두도록 지시하자 방백과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보수세를 내기 시작합니다(9절). 하나, 둘 성전세가 모아지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리가 와서 돈을 계산하고 돈의 최종 책임자는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로 넘어갑니다(10~12절). 맡겨진 돈으로 필요한 기술공들을 고용하며 왕이 세운 뜻에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보수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어지고 감독관과 기술공들이 칭찬받는 흐름 속에서 진짜 보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잠잠히 돌아보게 됩니다(13절). 솔로몬 시대 성전이 완공되고 100년이 웃도는 세월 속에서 성전의 외관만 낙후되었을까요.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요아스의 열심이 은연중에 암시됩니다(2,14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요아스가 성전 보수에 '뜻을 두었다'는 구절을 살피며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에 뜻을 두고 새해를 보내는지 돌아봅시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2. 성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백성의 참여로부터 성전 보수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환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생각하며 맡겨 주신 직분에 합당한 열심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8~10 [8]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9]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10]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7 역대하 24:15~27

수요일

오늘의 찬송 465 주 믿는 나 남 위해

말씀 속으로

15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 세라

Now Jehoiada was old and full of years, and he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hirty.

16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He was buried with the kings in the City of David, because of the good he had done in Israel for God and his temple.

17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After the death of Jehoiada, the officials of Judah came and paid homage to the king, and he listened to them.

18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They abandoned the temple of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and worshiped Asherah poles and idols. Because of their guilt, God's anger came upon Judah and Jerusalem.

19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Although the LORD sent prophets to the people to bring them back to him, and though they testified against them, they would not listen.

20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Then the Spirit of God came upon Zechariah son of Jehoiada the priest. He stood before the people and said, "This is what God says: 'Why do you disobey the LORD's commands? You will not prosper. Because you have forsaken the LORD, he has forsaken you.'"

21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But they plotted against him, and by order of the king they stoned him to death in the courtyard of the LORD's temple.

22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King Joash did not remember the kindness Zechariah's father Jehoiada had shown him but killed his son, who said as he lay dying, "May the LORD see this and call you to account."

17
—
수

23 일 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At the turn of the year, the army of Aram marched against Joash; it invaded Judah and Jerusalem and killed all the leaders of the people. They sent all the plunder to their king in Damascus.

24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Although the Aramean army had come with only a few men, the LORD delivered into their hands a much larger army. Because Judah had forsaken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judgment was executed on Joash.

25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When the Arameans withdrew, they left Joash severely wounded. His officials conspired against him for murdering the son of Jehoiada the priest, and they killed him in his bed. So he died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David, but not in the tombs of the kings.

26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Those who conspired against him were Zabad, son of Shimeath an Ammonite woman, and Jehozabad, son of Shimrith a Moabite woman.

27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The account of his sons, the many prophecies about him, and the record of the restoration of the temple of God are written in the annotations on the book of the kings. And Amaz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15~22).

23~24장 흐름을 살피면 성전에서 나고 자란 만큼 요아스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이라는 특정 시기를 반복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죽은 이후에 변화될 요아스를 추측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고 유다 방백의 이야기를 듣는 요아스가 묘사됩니다(17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또다시 어두워져 가는 유다를 느끼게 됩니다(18절).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기를 거듭 경고하시지만 그 사랑을 듣지도 아니하고 뿌리치는 왕과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19절). 무엇보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함께했다는 사실은 유다에게 등불을 주시며 바른 길로 안내하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지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스로 죽인 요아스의 살인에서 탄식할 뿐입니다(22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2.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략합니다(23~27).

성전에서 숨어 지내며 자란 요아스가 성전을 떠난 일만큼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그의 인생에 일어난 반전의 역사를 기술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을 들려줍니다(23절). 흥미로운 사실은 그날에 유다를 치러 온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인 반면에 유다의 진영은 심히 '큰' 군대였습니다(24절). 그러니까 힘의 세력으로 보면 유다가 지는 일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부상을 입게 되고 부상을 입은 그에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25절). 제사장과 레위인, 방백과 족장,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지만 그 끝은 어미의 품과도 같은 성전을 버리고, 신하들로부터 목숨이 베이는 불명예스런 죽음이었습니다. 거대한 반전이 유다 방백의 말을 들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에서 나고 자란 요아스가 성전을 버리는 결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나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2. 유다 방백의 말을 듣고 성전을 버린 요아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방백들을 보여 줍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3:3~8 3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6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7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8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8 역대하 25:1~16

목요일

오늘의 찬송 433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말씀 속으로

1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Amaziah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enty-nine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hoaddin; she was from Jerusalem.

2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wholeheartedly.

3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After the kingdom was firmly in his control, he executed the officials who had murdered his father the king.

4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Yet he did not put their sons to death, but acted in accordance with what is written in the Law, in the Book of Moses, where the LORD commanded: "Fathers shall not be put to death for their children, nor children put to death for their fathers; each is to die for his own sins."

5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삼십만 명을 얻고

Amaziah called the people of Judah together and assigned them according to their families to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for all Judah and Benjamin. He then mustered those twenty years old or more and found that there were three hundred thousand men ready for military service, able to handle the spear and shield.

6 또 은 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십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He also hired a hundred thousand fighting men from Israel for a hundred talents of silver.

18
—
목

7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But a man of God came to him and said, "O king, these troops from Israel must not march with you, for the LORD is not with Israel - not with any of the people of Ephraim.

8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Even if you go and fight courageously in battle, God will overthrow you before the enemy, for God has the power to help or to overthrow."

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Amaziah asked the man of God, "But what about the hundred talents I paid for these Israelite troops?" The man of God replied, "The LORD can give you much more than that."

10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So Amaziah dismissed the troops who had come to him from Ephraim and sent them home. They were furious with Judah and left for home in a great rage.

11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Amaziah then marshaled his strength and led his army to the Valley of Salt, where he killed ten thousand men of Seir.

12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The army of Judah also captured ten thousand men alive, took them to the top of a cliff and threw them down so that all were dashed to pieces.

13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벧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Meanwhile the troops that Amaziah had sent back and had not allowed to take part in the war raided Judean towns from Samaria to Beth Horon. They killed three thousand people and carried off great quantities of plunder.

14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When Amaziah returned from slaughtering the Edomites, he brought back the gods of the people of Seir. He set them up as his own gods, bowed down to them and burned sacrifices to them.

18
—
목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Amaziah, and he sent a prophet to him, who said, "Why do you consult this people's gods, which could not save their own people from your hand?"

16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e king said to him, "Have we appointed you an adviser to the king? Stop! Why be struck down?" So the prophet stopped but said, "I know that God has determined to destroy you,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listened to my couns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습니다(1~13).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1절). 그가 왕위에 올라 집권했을 때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3~4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는 기록에서 우리는 그가 요아스 밑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어느 정도 배우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못하였다는 평가에 이어 5절 이후로는 에돔과의 전쟁에 출전하는 상황이 소개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옛말이 되었는지, 창과 방패를 잡고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해 보니 삼십만 명에 불과합니다(5절). 아마샤 자신도 부족한 병력을 보면서 북 이스라엘의 큰 용사를 돈을 주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와 말합니다(6절).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7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에서 돌이켜 능히 이기게도, 지게도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라는 경고입니다.

2. 아마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14~16).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 준 말을 따라 아마샤는 은 백 달란트로 고용한 북 이스라엘 용사를 돌려보냅니다(10절). 이후 그가 필두에 선 유다의 대군은 담력을 내어 소금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며 승리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유다 진영 가운데 에돔 족속의 신상이 들려 있습니다(14절).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는 표현이 이런 상황에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기운에 취한 나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왕과 백성에게 또다시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15절)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승리가 필요하여 말씀을 붙잡을 때와 달리 승리를 거머쥔 아마샤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16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마샤의 변화될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돌려보낸 북 왕국의 용사로부터 유다 성읍이 약탈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 앞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읽어 봅시다(6:12~42).

2. 7절과 15절의 선지자가 동일한 인물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지 살피면서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6:8~11 [8]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9]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9 역대하 25:17~28

금요일

오늘의 찬송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말씀 속으로

17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After Amaziah king of Judah consulted his advisers, he sent this challenge to Jehoash son of Jehoahaz, the son of Jehu, king of Israel: "Come, meet me face to face."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But Jehoash king of Israel replied to Amaziah king of Judah: "A thistle in Lebanon sent a message to a cedar in Lebanon, 'Give your daughter to my son in marriage.' Then a wild beast in Lebanon came along and trampled the thistle underfoot.

19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You say to yourself that you have defeated Edom, and now you are arrogant and proud. But stay at home! Why ask for trouble and cause your own downfall and that of Judah also?"

20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Amaziah, however, would not listen, for God so worked that he might hand them over to Jehoash, because they sought the gods of Edom.

21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So Jehoash king of Israel attacked. He and Amaziah king of Judah faced each other at Beth Shemesh in Judah.

2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Judah was routed by Israel, and every man fled to his home.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Jehoash king of Israel captured Amaziah king of Judah, the son of Joash, the son of Ahaziah, at Beth Shemesh. Then Jehoash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from the Ephraim Gate to the Corner Gate - a section about six hundred feet long.

19
—
금

24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벧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He took all the gold and silver and all the articles found in the temple of God that had been in the care of Obed - Edom, together with the palace treasures and the hostages, and returned to Samaria.

25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십오 년 간 생존하였더라

Amaziah son of Joash king of Judah lived for fifteen years after the death of Jehoash son of Jehoahaz king of Israel.

26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Amaziah'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Judah and Israel?

27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From the time that Amaziah turned away from following the LORD, they conspired against him in Jerusalem and he fled to Lachish, but they sent men after him to Lachish and killed him there.

28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He was brought back by horse and was buried with his fathers in the City of Juda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를 침략합니다(17~24).

에돔 족속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유다의 발걸음이 얼마나 흥겨웠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승리의 감격에 취하기도 잠시, 폐허가 된 성읍이 아마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리라 믿은 이스라엘 형제로부터 공격을 받은 참상 앞에서 불현듯 유다의 진영 안에 함께 서 있는 이방 신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에 겨웠을 아마샤가 에돔을 무찌른 승리의 기세를 몰고 나가며, 성읍을 친 북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고자 합니다(17절).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 전만 해도 그는 북 이스라엘의 큰 용사를 돈을 주고 고용할 만큼 세력이 강성하진 못했습니다. 듣다 못한 요아스가 결국 장정을 몰고 유다 벧세메스에 이릅니다(21절). 그곳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는 것도 모자라 성전의 모든 금은을 갈취해 갑니다(23~24절). 성경은 요아스의 침략을 막을 방법이 있었으나 끝내 요청을 저버린 아마샤를 보여 주며, 그의 완고함이 이방 신에게 절한 것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19~20절).

2. 아마샤가 반역자의 무리에 의해 죽습니다(25~28).

에돔을 치고 한껏 전리품을 얻고 왔으나 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 아마샤의 일생을 살피면서 무엇을 손에 잡고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25절). 그러나 '통치했다',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생존하였다'는 표현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왕권을 실감하게 됩니다.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것이 그리 축복이 아니었다고 시사하는 25절에 이어서 다음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27절) 풍요롭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쫓고 쫓기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마샤의 생을 보며, 그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어떤 결말을 얻게 되었을지 질문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은 백 달란트를 지불하며 구한 병력이 도리어 원수가 된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애쓰지는 않습니까?

2. 성경은 아마샤의 완고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임을 증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33~37 33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34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35 내
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36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37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0

토요일

예레미야 5:1~19

오늘의 찬송 255 너희 죄 흉악하나

말씀 속으로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Go up and down the streets of Jerusalem, look around and consider, search through her squares. If you can find but one person who deals honestly and seeks the truth, I will forgive this city.

2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Although they say, 'As surely as the LORD lives,' still they are swearing falsely."

3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O LORD, do not your eyes look for truth? You struck them, but they felt no pain; you crushed them, but they refused correction. They made their faces harder than stone and refused to repent.

4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I thought, 'These are only the poor; they are foolish, for they do not know the way of the LORD, the requirements of their God.

5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So I will go to the leaders and speak to them; surely they know the way of the LORD, the requirements of their God.' But with one accord they too had broken off the yoke and torn off the bonds.

6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Therefore a lion from the forest will attack them, a wolf from the desert will ravage them, a leopard will lie in wait near their towns to tear to pieces any who venture out, for their rebellion is great and their backslidings many.

7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Why should I forgive you? Your children have forsaken me and sworn by gods that are not gods. I supplied all their needs, yet they committed adultery and thronged to the houses of prostitutes.

20
—
토

8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They are well-fed, lusty stallions, each neighing for another man's wife.

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Should I not punish them for this?" declares the LORD. "Should I not avenge myself on such a nation as this?"

10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Go through her vineyards and ravage them, but do not destroy them completely. Strip off her branches, for these people do not belong to the LORD.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The house of Israel and the house of Judah have been utterly unfaithful to me," declares the LORD.

1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They have lied about the LORD; they said, "He will do nothing! No harm will come to us; we will never see sword or famine.

13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The prophets are but wind and the word is not in them; so let what they say be done to them."

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God Almighty says: "Because the people have spoken these words, I will make my words in your mouth a fire and these people the wood it consumes."

1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O house of Israel," declares the LORD, "I am bringing a distant nation against you - an ancient and enduring nation, a people whose language you do not know, whose speech you do not understand.

16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Their quivers are like an open grave; all of them are mighty warriors.

5:10 성벽
히브리어) '포도나무'

5:15 네가
히브리어) '너희'

20
—
토

17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They will devour your harvests and food, devour your sons and daughters; they will devour your flocks and herds, devour your vines and fig trees. With the sword they will destroy the fortified cities in which you trust."

1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Yet even in those days," declares the LORD, "I will not destroy you completely.

19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And when the people ask, 'Why has the LORD our God done all this to us?' you will tell them, 'As you have forsaken me and served foreign gods in your own land, so now you will serve foreigners in a land not your own.'"

5:19 그들이
히브리어) '너희'

5:19 여호와를
히브리어) '나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한 사람이 있었다면!(1~9)

말씀을 따라가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고 없이 백성과 성읍을 치셔도 할 말이 없건만 어쩐지 길어지는 음성 안에서 숨겨진 의도를 헤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1절) '한 명',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의지 속에서 백성을 살리시려는 본심을 발견하게 되지만,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진노를 피하지 못한 유다의 현실은 유다가 얼마나 악을 도모하는 일에 민첩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혹시나 싶어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지도자들을 찾아가 보지만 전부 고삐 풀린 망아지에 불과하기까지 합니다(5절). 예레미야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참담한 실체 앞에서 하나님의 결단이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7절)

2.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10~19)

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보라는 명령이 있었다면(5:1), 본 단락은 '올라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10절). 의인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심판의 대리자로 서서 예루살렘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의 가지를 '다' 꺾지는 말라고 이르시며 유다를 치는 이방의 힘도 여호와의 주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히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입에서는 불의 언어가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다(14절). 이리저리 나부끼는 바람처럼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달리 참 선지자의 말은 불이 되어 나타나 바벨론 용사의 침략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수한 화살의 무게를 경고해 줍니다(16절). 그의 말대로 하루아침에 비축해 둔 양식을 잃고, 짐승 떼를 빼앗기고, 나무에 맺힌 열매마저 빼앗기고 나서야 유다 백성은 현실을 자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진멸',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로 뽑히고 건설될 유다의 미래가 넌지시 보입니다(18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의 삶을 암시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하루를 사모합시다.

2. 본문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시키며 말씀대로 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13절에 비추어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잠잠히 살펴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01~105 [101]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102]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103]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104]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105]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우주, 하나님의 창조

글 **김경래** (부목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기독교인이라면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물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대답한다면 꽤나 괜찮은 답변일 것이다. 그렇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 준다.

하지만 필자에게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았을 구절, 많은 그리스도인이 암송하는 구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 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곧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밝히는 말씀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절대자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함축하는 최초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

1) 대폭발 이전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에는 답하지 못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신론적 진화론이 지성의 표준인 것 같은 세상이 되었지만 어떠한 현대의 우주론도 아직 제1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근본적으로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 "왜 '무無'가 아닌 '유有'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대폭발Big Bang이론으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대폭발이 왜 발생했냐는 질문, 초고밀도 특이점이 왜 존재했냐는 질문, 그리고 그것이 왜 하필 약 138억 년 전에 폭발했냐는 질문을 낳을 뿐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1]

더욱이 에드윈 허블보다 우주 팽창의 개념을 먼저 제안하고, 대폭발 이론의 창시자가 된 조르주 르메트르는 기독교인이었으며, 자신의 발견과 이론이 '무無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기독교 교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쓴 바와 같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현대 과학이 측정하는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에게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와 온 우주의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21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21~27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 80:19)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
월요일

예레미야 5:20~31

오늘의 찬송 266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말씀 속으로

20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Announce this to the house of Jacob and proclaim it in Judah:

21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Hear this, you foolish and senseless people, who have eyes but do not see, who have ears but do not hear:

2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Should you not fear me?" declares the LORD. "Should you not tremble in my presence? I made the sand a boundary for the sea, an everlasting barrier it cannot cross. The waves may roll, but they cannot prevail; they may roar, but they cannot cross it.

23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But these people have stubborn and rebellious hearts; they have turned aside and gone away.

24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They do not say to themselves, 'Let us fear the LORD our God, who gives autumn and spring rains in season, who assures us of the regular weeks of harvest.'

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Your wrongdoings have kept these away; your sins have deprived you of good.

26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Among my people are wicked men who lie in wait like men who snare birds and like those who set traps to catch men.

27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Like cages full of birds, their houses are full of deceit; they have become rich and powerful

28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and have grown fat and sleek. Their evil deeds have no limit; they do not plead the case of the fatherless to win it, they do not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5:20 너는
히브리어) '너희'

5:24,27 너희
히브리어) '그들'

22
—
월

29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Should I not punish them for this?" declares the LORD. "Should I not avenge myself on such a nation as this?

30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A horrible and shocking thing has happened in the land:

31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The prophets prophesy lies, the priests rule by their own authority, and my people love it this way. But what will you do in the e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나의 앞에는 무엇이?(20~25)

한 사람을 찾지 못해 한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된 유다의 역사를 살피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피게 됩니다(5:15).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나라를 일으키고, 넘어트리시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경외할 줄 몰랐으나 바다는 한계를 두신 창조주께 복종합니다. 유다는 자만하였으나 파도는 한계를 설정하신 창조주께 순복합니다. 이처럼 역사와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엎드리지만 정작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에 앞장섭니다(22~23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함으로 인하여 유다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는 은혜조차 망각하게 됩니다(24~25절). 그야말로 제 스스로 올무가 되어 하늘의 귀하고도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25절)

2. 하나님이 친히 염려하십니다(26~31).

하물며 자연도 제 주인을 알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떠하냐는 책망에 이어 악인이 무성하고 속임이 가득한 유다 땅이 묘사됩니다. 땅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을 잊으니 공정한 추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불의한 추로 얻은 부와 재물로 인하여 고아와 빈민의 삶은 더욱 애달파지기만 합니다(26~28절). 그러자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29절) 하나님의 눈에는 유다의 황폐해질 성읍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 불의한 힘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얼씨구나 좋다고 따르는 백성들 자체가 심히 염려스러우실 뿐입니다(31절). 한편으론 자연만물도 복종하는 하나님이 '무섭고 놀라운 일'을 친히 예고해 주시는 모습에서 유다 백성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유다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악이 악을 낳은 유다를 보면서 말씀으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시다.

2. 유다를 책망하시면서도 염려하시는 31절의 음성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3:1~3,6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3
화요일

역대하 26:1~23

오늘의 찬송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말씀 속으로

1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십육 세 된 웃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Then all the people of Judah took Uzziah, who was sixteen years old, and made him king in place of his father Amaziah.

2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웃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He was the one who rebuilt Elath and restored it to Judah after Amaziah rested with his fathers.

3 웃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십육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Uzziah was sixteen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fifty-two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coliah; she was from Jerusalem.

4 웃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Amaziah had done.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He sought God during the days of Zechariah, who instructed him in the fear of God. As long as he sought the LORD, God gave him success.

6 웃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He went to war against the Philistines and broke down the walls of Gath, Jabneh and Ashdod. He then rebuilt towns near Ashdod and elsewhere among the Philistines.

7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God helped him against the Philistines and against the Arabs who lived in Gur Baal and against the Meunites.

8 암몬 사람들이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웃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The Ammonites brought tribute to Uzziah, and his fame spread as far as the border of Egypt, because he had become very powerful.

26:2 엘롯
'에시온게벨'이라고도 불리는 '엘롯'은 에돔 땅에 속한 해안 도시이다.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이곳이 웃시야 시대에 재건된다.

23
—
화

9 웃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Uzziah built towers in Jerusalem at the Corner Gate, at the Valley Gate and at the angle of the wall, and he fortified them.

10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He also built towers in the desert and dug many cisterns, because he had much livestock in the foothills and in the plain. He had people working his fields and vineyards in the hills and in the fertile lands, for he loved the soil.

11 웃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Uzziah had a well-trained army, ready to go out by divisions according to their numbers as mustered by Jeiel the secretary and Maaseiah the officer under the direction of Hananiah, one of the royal officials.

12 족장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The total number of family leaders over the fighting men was 2,600.

13 그의 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Under their command was an army of 307,500 men trained for war, a powerful force to support the king against his enemies.

14 웃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Uzziah provided shields, spears, helmets, coats of armor, bows and slingstones for the entire army.

15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In Jerusalem he made machines designed by skillful men for use on the towers and on the corner defenses to shoot arrows and hurl large stones. His fame spread far and wide, for he was greatly helped until he became powerful.

16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But after Uzziah became powerful, his pride led to his downfall.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is God, and entered the temple of the LORD to burn incense on the altar of incense.

17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팔십 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Azariah the priest with eighty other courageous priests of the LORD followed him in.

23
—
화

18 웃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They confronted him and said, “It is not right for you, Uzziah, to burn incense to the LORD. That is for the priests, the descendants of Aaron, who have been consecrated to burn incense. Leave the sanctuary, for you have been unfaithful; and you will not be honored by the LORD God.”

19 웃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Uzziah, who had a censer in his hand ready to burn incense, became angry. While he was raging at the priests in their presence before the incense altar in the LORD's temple, leprosy broke out on his forehead.

20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시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When Azariah the chief priest and all the other priests looked at him, they saw that he had leprosy on his forehead, so they hurried him out. Indeed, he himself was eager to leave, because the LORD had afflicted him.

21 웃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King Uzziah had leprosy until the day he died. He lived in a separate house - leprous, and excluded from the temple of the LORD. Jotham his son had charge of the palace and governed the people of the land.

22 웃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The other events of Uzziah's reign, from beginning to end, are recorded by the prophet Isaiah son of Amoz.

23 웃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Uzziah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near them in a field for burial that belonged to the kings, for people said, "He had leprosy." And Jotham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26:22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웃시야 왕이 죽는 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사 6:1).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습니다(1~15).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가 나이 16세에 왕으로 세워집니다(1절). 3절은 그가 유다의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52년이었다고 밝히며 므낫세 다음으로 오래 통치한 왕임을 가르쳐 줍니다. 재위와 더불어 웃시야는 엘롯을 재건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워 요새화 전략을 펼칩니다. 무엇보다 농경에 관심이 많은 그인지라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며 풍성한 결실을 얻기도 합니다(10절). 이렇듯 전 영역으로 나라를 견실하게 세우는 데 일조한 웃시야의 행적을 두고 성경은 '강성하여졌다', '강성하여졌다'라고 평가하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만큼이나 힘을 얻고 있는 그의 나라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절은 웃시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알리며, 변화를 맞이하게 될 미래를 직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은' 동안에는 형통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지매 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 웃시야가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16~23).

웃시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웃시야의 교만해진 마음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나아갑니다. "웃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16절) 성전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 요아스는 성전을 개혁하였으나 등돌리고 말았다면, 아버지 아마샤 때에는 성전 안의 금은을 빼앗기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는 성전 안에 들어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남유다, 그들의 어두운 역사를 엿보게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한 웃시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이마에 나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율법을 부정하였다가 도리어 자신이 부정하여져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말로를 보며 강성하여질 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강성할 순 있어도 형통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축복이 나와 가정 안에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2. 힘을 축적하고 변화된 웃시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능력의 원천이자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믿음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1:1~3 [1]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뗀 아이와 같습니다. [3]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4 — 수요일

역대하 27:1~9

오늘의 찬송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 속으로

1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Jotham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sixteen years. His mother's name was Jerusha daughter of Zadok.

2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Uzziah had done, but unlike him he did not enter the temple of the LORD. The people, however, continued their corrupt practices.

3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Jotham rebuilt the Upper Gate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did extensive work on the wall at the hill of Ophel.

4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He built towns in the Judean hills and forts and towers in the wooded areas.

5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이년과 제삼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Jotham made war on the king of the Ammonites and conquered them. That year the Ammonites paid him a hundred talents of silver, ten thousand cors of wheat and ten thousand cors of barley. The Ammonites brought him the same amount also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6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Jotham grew powerful because he walked steadfastly before the LORD his God.

7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The other events in Jotham's reign, including all his wars and the other things he did,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Israel and Judah.

8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십육 년이라

He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sixteen years.

9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Jotham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David. And Ahaz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유다 왕 요담이 재위합니다(1~5).

이마에 나병이 들어 출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웃시야 다음으로 아들 요담이 왕좌에 오릅니다(1절). 흥미롭게도 그에 관하여서는 어머니의 이름과 출생이 서두에 기록됩니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제사장 가문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 슬하에서 요담이 받았을 신앙 교육을 추측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아버지와는 다르게 성전의 출입을 함부로 하지 아니합니다(2절).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하지 않아 죽었다면 아들은 여호와의 전 출입을 삼가며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전 윗문을 건축하며 성전을 보수한 행적은 유다를 통치하는 중심 원리를 상고하게 하며, 요담과 웃시야를 구분하는 기준을 발견하도록 이끕니다. 성벽을 견고히 하고 논밭을 기경하는 등 나라의 살림을 안정화시키는 일이 먼저였던 아버지에 반하여 아들 요담은 성전을 보수한 이후에 진영과 망대를 견고히 합니다(3~4절). 이것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겠구나 싶으면서도 여전히 부패한 백성의 현실은 허와 실을 갖춘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2,6절).

2. 요담의 행적이 마무리됩니다(6~9).

요담이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이 16년입니다. 그런데 통치 연수에 비해서 그의 역사는 유독 짧게 기술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아하스, 그러니까 남 유다에서도 악한 왕 중의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하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비단 그의 시대만이 작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나 백성은 산당을 찾으며 이방 신상에게 절한 불순종이 결과적으로는 아하스의 통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동시에 왕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부여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게 됩니다. 어쩌면 요담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산당을 허물어 백성의 원망을 사고 싶지 않은 염려가 더 크지는 않았을까요.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요담의 성전 보수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지 돌아봅시다.

2. 요담은 개인적으로 바른 길을 걸었지만 그의 통치 아래 놓인 백성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왕과 백성을 보면서 역대기 저자가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을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9:8~12,23~24 8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9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10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11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12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23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24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5 역대하 28:1~15

목요일

오늘의 찬송 280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말씀 속으로

1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Ahaz was twen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sixteen years. Unlike David his father, he did not do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2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He walked in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and also made cast idols for worshiping the Baals.

3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He burned sacrifices in the Valley of Ben Hinnom and sacrificed his sons in the fire, following the detestable ways of the nations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 Israelites.

4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He offered sacrifices and burned incense at the high places, on the hilltops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5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Therefore the LORD his God handed him over to the king of Aram. The Arameans defeated him and took many of his people as prisoners and brought them to Damascus. He was also given into the hands of the king of Israel, who inflicted heavy casualties on him.

6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십이만 명을 죽였으며

In one day Pekah son of Remaliah killed a hundred and twenty thousand soldiers in Judah - because Judah had forsaken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7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내대신 아스리감과 총리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Zicri, an Ephraimite warrior, killed Maaseiah the king's son, Azrikam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palace, and Elkanah, second to the king.

8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이십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The Israelites took captive from their kinsmen two hundred thousand wives, sons and daughters. They also took a great deal of plunder, which they carried back to Samaria.

25
—
목

9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But a prophet of the LORD named Oded was there, and he went out to meet the army when it returned to Samaria. He said to them, "Because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was angry with Judah, he gave them into your hand. But you have slaughtered them in a rage that reaches to heaven.

10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And now you intend to make the men and women of Judah and Jerusalem your slaves. But aren't you also guilty of sins against the LORD your God?

11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Now listen to me! Send back your fellow countrymen you have taken as prisoners, for the LORD's fierce anger rests on you."

12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Then some of the leaders in Ephraim - Azariah son of Jehohanan, Berekiah son of Meshillemoth, Jehizkiah son of Shallum, and Amasa son of Hadlai - confronted those who were arriving from the war.

1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You must not bring those prisoners here," they said, "or we will be guilty before the LORD. Do you intend to add to our sin and guilt? For our guilt is already great, and his fierce anger rests on Israel."

14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So the soldiers gave up the prisoners and plunder in the presence of the officials and all the assembly.

15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The men designated by name took the prisoners, and from the plunder they clothed all who were naked. They provided them with clothes and sandals, food and drink, and healing balm. All those who were weak they put on donkeys. So they took them back to their fellow countrymen at Jericho, the City of Palms, and returned to Samaria.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남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1~7).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27:6) 요담에 관한 평가가 여운을 채 남기기도 전에 그의 아들 아하스는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1절) 그동안 우상을 숭배한 왕은 있어도 왕이 직접 우상을 만든 경우는 없었는데, 아하스는 우상을 부어 만들 뿐만 아니라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제물로 삼아 이방 신에게 바치는 가증한 행위를 벌입니다(3절). 왕이 이 정도였으니 백성은 오죽하였을까 싶은 이때에 하나님도 남 유다를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는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5절). 그 결과, 무려 유다의 용사 십이만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북 이스라엘 형제로부터 주요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6~7절). 여기서 우리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 곧 '애곡하는 자의 골짜기'에서 울려 퍼진 통곡 소리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2. 선지자 오뎃이 경고합니다(8~15).

이스라엘 왕에 의하여 유다가 크게 살육당했습니다(5절). 그런데 8절은 살육당한 일뿐만 아니라 족히 이십만 명에 이르는 유다의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혀 가고, 많은 재물이 노략당했다고 말합니다.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을 만큼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간의 멀어진 거리를 실감하게 되는데, 불현듯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출현합니다(9절).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북 이스라엘 장정을 맞이하는 중에 다가오는 군대를 영접하며 경고합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10절) 북 이스라엘이 보인 혈기는 정도가 지나치다 못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아하스의 지독한 악행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사실을 느껴보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제물로 바쳐진 아하스 자녀의 비명소리 안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땅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매인 자를 푸시고 갇힌 자를 놓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2. 왕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줄곧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르치고 보여 주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까이하며 즐겨 듣는 말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5:6~9 [6]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7] 주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8]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9]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6

금요일

역대하 28:16~27

오늘의 찬송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말씀 속으로

16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At that time King Ahaz sent to the king of Assyria for help.

17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The Edomites had again come and attacked Judah and carried away prisoners,

18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벧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while the Philistines had raided towns in the foothills and in the Negev of Judah. They captured and occupied Beth Shemesh, Aijalon and Gederoth, as well as Soco, Timnah and Gimzo, with their surrounding villages.

19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The LORD had humbled Judah because of Ahaz king of Israel, for he had promoted wickedness in Judah and had been most unfaithful to the LORD.

20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Tiglath-Pileser king of Assyria came to him, but he gave him trouble instead of help.

21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Ahaz took some of the things from the temple of the LORD and from the royal palace and from the princes and presented them to the king of Assyria, but that did not help him.

22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In his time of trouble King Ahaz became even more unfaithful to the LORD.

23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He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s of Damascus, who had defeated him; for he thought, "Since the gods of the kings of Aram have helped them, I will sacrifice to them so they will help me." But they were his downfall and the downfall of all Israel.

26
—
금

24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Ahaz gathered together the furnishings from the temple of God and took them away. He shut the doors of the LORD's temple and set up altars at every street corner in Jerusalem.

25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In every town in Judah he built high places to burn sacrifices to other gods and provoked the LORD, the God of his fathers, to anger.

26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The other events of his reign and all his ways, from beginning to end,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Judah and Israel.

27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Ahaz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Jerusalem, but he was not placed in the tombs of the kings of Israel. And Hezek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아하스의 손이 앗수르를 잡습니다(16~21).

28장 1~15절은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한 사건을 다룹니다. 당시에 아람, 이스라엘, 블레셋을 포함한 서쪽의 여러 나라가 앗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동맹을 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의 거부로 인해서 동맹 체결이 지연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을 통해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본장에는 블레셋과 에돔의 침략을 눈앞에 둔 유다가 나오며 위상이 사그라든 현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에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모두의 원수인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환심을 사고자 드린 갖은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갑니다(16,21절). 앗수르의 지배력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사실상 자유를 얻고자 하였으나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19절)

2. 아하스가 아람 신을 찾아갑니다(22~27).

아하스가 앗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한 대가로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압, 암몬 등이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하였다'라는 표현은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힘겨운 시대상을 암시합니다(22절). 그럼에도 이방 신을 직접 찾아가 제사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집니다(23절). 잠잠히 아하스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아람 신을 도구삼아 아하스와 유다를 치게 하셨고, 기회라면 기회였을 그 순간을 놓치며 아하스는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는 것도 모자라 예루살렘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 이방 신에게 분향하는 일을 저지릅니다(24~25절). 회복을 논하기엔 어둠이 너무도 짙게 깔린 유다 땅,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시며 그분의 일을 성실히 이어 가십니다(27절).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하스가 모두의 원수인 앗수르의 손을 잡은 결과, 모두가 앗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얻으려 하였으나 전부를 잃은 생애를 보면서 특히 그가 성전의 재물을 앗수르 왕에게 바친 사건의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28:21).

2. 아하스는 신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행보를 살피며 나와 가정,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 위에 토대를 두고 부활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5:8~11 [8]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9]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10]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11]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7

토요일

예레미야 6:1~15

오늘의 찬송 535 주 예수 대문 밖에

말씀 속으로

1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Flee for safety, people of Benjamin! Flee from Jerusalem! Sound the trumpet in Tekoa! Raise the signal over Beth Hakkerem! For disaster looms out of the north, even terrible destruction.

2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I will destroy the Daughter of Zion, so beautiful and delicate.

3 목자들이 그 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Shepherds with their flocks will come against her; they will pitch their tents around her, each tending his own portion."

4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Prepare for battle against her! Arise, let us attack at noon! But, alas, the daylight is fading, and the shadows of evening grow long.

5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So arise, let us attack at night and destroy her fortresses!"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중에는 오직 포학한 것뿐이니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Cut down the trees and build siege ramps against Jerusalem. This city must be punished; it is filled with oppression.

7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As a well pours out its water, so she pours out her wickedness. Violence and destruction resound in her; her sickness and wounds are ever before me.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Take warning, O Jerusalem, or I will turn away from you and make your land desolate so no one can live in it."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Let them glean the remnant of Israel as thoroughly as a vine; pass your hand over the branches again, like one gathering grapes."

27
—
토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To whom can I speak and give warning? Who will listen to me? Their ears are closed so they cannot hear. The word of the LORD is offensive to them; they find no pleasure in it.

11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But I am full of the wrath of the LORD, and I cannot hold it in. "Pour it out on the children in the street and on the young men gathered together; both husband and wife will be caught in it, and the old, those weighed down with years.

12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ir houses will be turned over to others, together with their fields and their wives, when I stretch out my hand against those who live in the land," declares the LORD.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all are greedy for gain; prophets and priests alike, all practice deceit.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They dress the wound of my people as though it were not serious. 'Peace, peace,' they say, when there is no peace.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Are they ashamed of their loathsome conduct? No, they have no shame at all; they do not even know how to blush. So they will fall among the fallen; they will be brought down when I punish them," says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1~8).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에 살아가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참으로 간결하지만 이보다 부러운 호칭이 있을까 싶은 순간에 두 귀를 의심케 하는 경고가 들려옵니다. "내가 멸절하리니"(2절) 그러자 적군이 사방에서 소리치며 발걸음을 바삐 합니다. "정오에 올라가자!" "아니 날이 기울어 저녁이 길었으니 밤에 올라가서 요새를 헐자!"(4~5절) 풍전등화와도 같은 유다의 신세에 마음이 다급해지지만 정작 애가 타신 건 하나님 한 분이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딸'이라 부를 만큼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벌받을 성'이라 호통치시며 훈계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6,8절). 그럼에도 진노 중에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음성에 유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두리번두리번 찾게 됩니다.

2. 하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9~15).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피조물은 결코 없습니다. 서슬퍼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9절) 부디 허락된 시간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을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10절) 문득 예레미야를 부르신 날에 '나는 아이라' 스스로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1:6).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은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서 번민해 온 심정을 보여 주는가 하면, 희망을 기대하기보다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의 말을 불이 되게 하셔서 바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4~15절). 그러니 하나님의 부탁이 먼저는 예레미야를 살려 주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든든히 연합되기를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은 부정하고 불평하는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불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8~13 [8]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9]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10]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1]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12]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13]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한남대학교 인돈기념관 |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해방 이전까지 호남 선교에 집중했던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는 1949년 대전에 새로운 스테이션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덕군 회덕면 오정리(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 전쟁으로 중단된 사업은 1954년 대전에 스테이션과 아울러 대학을 세우는 것으로 급진전되었다. 그렇게 1956년 대전대학(대전기독학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70년 숭실대학교와 통합하여 숭전대학교로, 1982년 다시 분리되어 지금의 한남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1956년 대학의 설립과 함께 5월 1일 착공하여 1957년 9월 30일 준공된 '인돈기념관'(본관)은, 미국 앨라배마 버밍햄의 건축가 데이비스의 설계로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데, 특히 붉은 벽돌의 외벽면에 십자가 무늬를 부조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건물의 종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건물은 대전대학의 초대학장이었던 인돈(윌림엄 인톤)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인돈기념관'으로 지어졌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믿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 유적> 중 -

-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똘뱅이 www.honggoon.net

by Hongsoon

28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1/28~2/3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시 90:16)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9
—
월요일

예레미야 6:16~30

오늘의 찬송 515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말씀 속으로

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This is what the LORD says: "Stand at the crossroads and look; ask for the ancient paths, ask where the good way is, and walk in i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But you said, 'We will not walk in it.'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I appointed watchmen over you and said, 'Listen to the sound of the trumpet!' But you said, 'We will not listen.'

18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Therefore hear, O nations; observe, O witnesses, what will happen to them.

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Hear, O earth: I am bringing disaster on this people, the fruit of their schemes, because they have not listened to my words and have rejected my law.

20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What do I care about incense from Sheba or sweet calamus from a distant land? Your burnt offerings are not acceptable; your sacrifices do not please me."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will put obstacles before this people. Fathers and sons alike will stumble over them; neighbors and friends will perish."

2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This is what the LORD says: "Look, an army is coming from the land of the north; a great nation is being stirred up from the ends of the earth.

16:20 향품
창포

16:20 그들
히브리어) '너희'

29
—
월

23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They are armed with bow and spear; they are cruel and show no mercy. They sound like the roaring sea as they ride on their horses; they come like men in battle formation to attack you, O Daughter of Zion."

24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We have heard reports about them, and our hands hang limp. Anguish has gripped us, pain like that of a woman in labor.

25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Do not go out to the fields or walk on the roads, for the enemy has a sword, and there is terror on every side.

26 딸 내 백성이 굵은 베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O my people, put on sackcloth and roll in ashes; mourn with bitter wailing as for an only son, for suddenly the destroyer will come upon us.

27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I have made you a tester of metals and my people the ore, that you may observe and test their ways.

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They are all hardened rebels, going about to slander. They are bronze and iron; they all act corruptly.

29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The bellows blow fiercely to burn away the lead with fire, but the refining goes on in vain; the wicked are not purged out.

30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They are called rejected silver, because the LORD has rejected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16~21)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다'라는 부제로 말씀이 열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남 유다가 걸어온 행적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16절) 선지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길목마다 찾아와 주셔서 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유다 백성은 선한 길을 거부하며 가지 않겠노라 선포하고, 파수꾼의 파수하는 소리마저 외면하고 맙니다(17절).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녀를 잃은 것만 같은 상실의 아픔이 마침내 진노의 감정으로 표출되고, 듣지 않는 유다를 대신하여 이제는 이방 나라와 땅을 부르시며 소환하십니다(18~19절). 성경은 들어야 할 이가 듣지 아니하고, 따라야 할 이가 따르지 않은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제사를 드린다고 심히 꾸짖습니다(20절).

2. 하나님은 버려진 자도 고치십니다(22~30).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도 유다의 패역함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보아라."(27절) 아무리 단단한 금속일지라도 뜨거운 불에 녹아 불순물이 걷히기 마련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심판의 불길을 통과하는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조차 유다를 버리셨다고 증언합니다(30절).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내버린 은'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그러하였다면, 하나님도 그만 무심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내버린 은 사이로 예레미야를 세우시며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26절).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여 몸에 질고를 새기는 예레미야와, 그의 모습 뒤로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예수님이 발견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유다는 값지고 향기나는 것을 가져오나 하나님은 유다의 외식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나와 가정 안에 살아 있기를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버린 은도 고치시는 손길을 묵상하며 마음의 아픔, 육신의 질고와 같은 문제를 두고 아버지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3:15~21 15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16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17 나라를 구하는 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 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8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19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20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21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0

화요일

역대하 29:1~19

오늘의 찬송 406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말씀 속으로

1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Hezekiah was twen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enty-nine years. His mother's name was Abijah daughter of Zechariah.

2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3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In the first month of the first year of his reign, he opened the door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repaired them.

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He brought in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ssembled them in the square on the east side

5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and said: "Listen to me, Levites! Consecrate yourselves now and consecrate the temple of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Remove all defilement from the sanctuary.

6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Our fathers were unfaithful;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our God and forsook him. They turned their faces away from the LORD's dwelling place and turned their backs on him.

7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They also shut the doors of the portico and put out the lamps. They did not burn incense or present any burnt offerings at the sanctuary to the God of Israel.

8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Therefore, the anger of the LORD has fallen on Judah and Jerusalem; he has made them an object of dread and horror and scorn, as you can see with your own eyes.

30
—
화

9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This is why our fathers have fallen by the sword and why our sons and daughters and our wives are in captivity.

10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Now I intend to make a covenant with the LORD, the God of Israel, so that his fierce anger will turn away from us.

11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My sons, do not be negligent now, for the LORD has chosen you to stand before him and serve him, to minister before him and to burn incense."

12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새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Then these Levites set to work: from the Kohathites, Mahath son of Amasai and Joel son of Azariah; from the Merarites, Kish son of Abdi and Azariah son of Jehallelel; from the Gershonites, Joah son of Zimmah and Eden son of Joah;

13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맛다냐와

from the descendants of Elizaphan, Shimri and Jeiel; from the descendants of Asaph, Zechariah and Mattaniah;

14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웃시엘이라

from the descendants of Heman, Jehiel and Shimei; from the descendants of Jeduthun, Shemaiah and Uzziel.

15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새

When they had assembled their brothers and consecrated themselves, they went in to purify the temple of the LORD, as the king had ordered, following the word of the LORD.

16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The priests went into the sanctuary of the LORD to purify it. They brought out to the courtyard of the LORD's temple everything unclean that they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The Levites took it and carried it out to the Kidron Valley.

30
—
화

17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팔 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십육 일에 이르러 마치고

They began the consecration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and by the eighth day of the month they reached the portico of the LORD. For eight more days they consecrated the temple of the LORD itself, finishing on the six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18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Then they went in to King Hezekiah and reported: "We have purified the entire temple of the LORD, the altar of burnt offering with all its utensils, and the table for setting out the consecrated bread, with all its articles.

19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We have prepared and consecrated all the articles that King Ahaz removed in his unfaithfulness while he was king. They are now in front of the LORD's alta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히스기야가 힘 있게 재위합니다(1~11).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아하스 아래에서 히스기야가 자라납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반면교사 삼았을까요, 히스기야를 구속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신비한 구속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2절). 무엇보다 '첫째 해 첫째 달',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선에 나서서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은 행실에 눈길이 갑니다(3~4절). 이와 같은 행보 안에는 유다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질적으로 꿰뚫은 히스기야의 지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6절) 이것이 유다가 이방의 노략거리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임을 깨달은 그가 서둘러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11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성심껏 동참하라는 명령입니다.

2. 히스기야가 말씀을 앞세우며 통치합니다(12~19).

히스기야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그의 역사를 소개하는 데 많은 지면이 할애된 흐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 때에는 왕과 백성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재위와 동시에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한 히스기야의 행보는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과정이 어그러지면 좋은 결과를 얻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본 단락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서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끈 왕의 통솔력을 강조하는가 하면,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한 믿음을 보여 줍니다(15~19절). 한마디로 유다 왕과 백성의 주인은 히스기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곧 유다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린 히스기야의 역사를 들으며 귀환 공동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의 대조되는 역사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잠잠히 머물며 이 땅과 한국교회 위에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2.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3~5 3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4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5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1

수요일

역대하 29:20~36

오늘의 찬송 413 내 평생에 가는 길

말씀 속으로

20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Early the next morning King Hezekiah gathered the city officials together and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21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They brought seven bulls, seven rams, seven male lambs and seven male goats as a sin offering for the kingdom, for the sanctuary and for Judah. The king commanded the priests, the descendants of Aaron, to offer these on the altar of the LORD.

22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So they slaughtered the bulls, and the priests took the blood and sprinkled it on the altar; next they slaughtered the rams and sprinkled their blood on the altar; then they slaughtered the lambs and sprinkled their blood on the altar.

23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The goats for the sin offering were brought before the king and the assembly, and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24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The priests then slaughtered the goats and presented their blood on the altar for a sin offering to atone for all Israel, because the king had ordered the burnt offering and the sin offering for all Israel.

25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He stationed the Levites in the temple of the LORD with cymbals, harps and lyres in the way prescribed by David and Gad the king's seer and Nathan the prophet; this was commanded by the LORD through his prophets.

26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So the Levites stood ready with David's instruments, and the priests with their trumpets.

27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Hezekiah gave the order to sacrifice the burnt offering on the altar. As the offering began, singing to the LORD began also, accompanied by trumpets and the instruments of David king of Israel.

28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The whole assembly bowed in worship, while the singers sang and the trumpeters played. All this continued until the sacrifice of the burnt offering was completed.

31
—
수

29 제사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When the offerings were finished, the king and everyone present with him knelt down and worshiped.

30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King Hezekiah and his officials ordered the Levites to praise the LORD with the words of David and of Asaph the seer. So they sang praises with gladness and bowed their heads and worshiped.

31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Then Hezekiah said, “You have now dedicated yourselves to the LORD. Come and bring sacrifices and thank offerings to the temple of the LORD.” So the assembly brought sacrifices and thank offerings, and all whose hearts were willing brought burnt offerings.

32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칠십 마리요 숫양이 백 마리요 어린 양이 이백 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The number of burnt offerings the assembly brought was seventy bulls, a hundred rams and two hundred male lambs - all of them for burnt offerings to the LORD.

33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육백 마리요 양이 삼천 마리라

The animals consecrated as sacrifices amounted to six hundred bulls and three thousand sheep and goats.

34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The priests, however, were too few to skin all the burnt offerings; so their kinsmen the Levites helped them until the task was finished and until other priests had been consecrated, for the Levites had been more conscientious in consecrating themselves than the priests had been.

35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There were burnt offerings in abundance, together with the fat of the fellowship offerings and the drink offerings that accompanied the burnt offerings. So the service of the temple of the LORD was reestablished.

36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Hezekiah and all the people rejoiced at what God had brought about for his people, because it was done so quickl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땅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올려집니다(20~30).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해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분에 합한 삶을 회복해 가는 시간 뒤로 히스기야 왕이 제물을 준비하여 성전에 오릅니다(20절). 특히나 '일찍이' 일어나 서둘렀다는 묘사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백성을 인도해 가는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이 돋보여지는 듯합니다. 준비된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을 통하여 속죄제사가 드려지면서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막힌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21~24절). 흥미롭게도 제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레위인이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며 나팔을 불고, 그들을 따라 온 회중이 덩달아 경배하며 노래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27~28절). 힘은 힘대로 쇠퇴해져 가고, 열방의 틈바구니에 끼여 쉽지 않은 현실에서 남 유다 땅에 울려 퍼진 경배 소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왕, 귀인, 레위 사람이 몸을 굽혀 예배한 그날에 하나님도 그들과 더불어 춤추시며 즐겁게 노래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2.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31~36)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리는 비단 특정 사람에게만 허락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은혜의 장을 시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31절) 기록에 따르면 백성 중에는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 자도 함께하였는데, 그 수효가 얼마나 컸는지 제물을 관리할 제사장의 수가 부족할 정도입니다(32~34절). 그래서 그들을 도와 레위 사람이 손을 거들며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백성을 성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불과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왕이 이방 신전을 찾아가 제사드리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면 미처 한 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유다 땅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준비된 이 기쁨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며 더불어 기뻐하게 만듭니다(36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유다를 둘러싼 열강의 압력은 변한 것이 없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왕과 백성이 기뻐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성전을 찾은 히스기야의 발걸음을 묵상하며 새해 첫 달을 보내는 요즘, 내가 우선하는 일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2.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는 왕과 수종드는 자와 백성의 순종이 함께합니다. 예비하신 것을 얻고 취한 믿음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5:1~5,21 [1]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2]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 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3]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4]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5]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21]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눈을 들어

하나님,
새해 첫 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하는 주님의 은총을 느끼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이 주님 빛으로 밝아지고,

혼란과 혼동으로 가득한 우리 생각이

주님의 지혜로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023. 12. 6(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53회 메시아 연주회 의미와 후기

글 **이원유** (장로)

2023년 12월 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3회 메시아 연주회가 소망교회 주관으로 올려졌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만민에게 오신 메시아 성탄 음악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과 외국 유학생, 근로자, 난민과 탈북민 등을 특별 초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50만 명의 이주민과 2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수천 명의 난민과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습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성탄의 계절에 헨델의 메시아 연주회에 초청하는 것은 종교와 국적을 떠나 한국 기독교의 성탄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망교회 호산나 찬양대 임한귀 지휘자가 한국교회연합 약 300명의 합창대원과 50명의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고, 3,000여 석을 꽉 채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소망교회 찬양대가 주축이 된 300명의 합창단원은 10월 초부터 주 2회, 총 19회 연습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개관 이래 3천여 석을 다 채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되어 연주한 것은 지휘자의 열과 성, 합창단원들의 호응과 기도, 임원들의 수고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앵콜로 할렐루야를 모두 일어서 같이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주회 후에 참여한 여러 단체로부터 소감들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단체의 글을 소개합니다.

1 경기도 양주시 서정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과 근로자들과 참석하였습니다. 한국 CBMC 모임에서 이원유 장로님으로부터 '만민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준비한다는 취지를 듣고 학교 당국에 건의하여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양주시 외국 근로자들에게도 함께 알려서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참가한 유학생과 근로자들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몽골, 인도 등 5개국 45명으로 이슬람교도와 무종교가 대부분이라 공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개별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투어(인사동 등)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를 했지만, 공연을 관람한 외국 유학생과 근로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선물까지 받아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서울을 나와 본 적이 별로 없던 참가자들은 시내 투어와 식사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규모에 놀랐고, 대극장의 크기에 놀랐고, 3,000석을 가득 채운 관중에 놀랐고, 자리마다 모니터로 번역되는 시스템에 놀랐고, 300여 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규모에 놀랐고, 무엇보다 메시아라는 대공연을 관람했다는 자체가 문화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공연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요즘 선교지에서는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과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른바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_관객 **정영선** 서정대학교 교수

2 센터의 아이들이 시험 기간과 먼 거리 이동으로 인해 인원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학생들 15명, 교사 3명, 총 18명 관람했습니다. 지루할 것 같은 공연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먼 거리에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연 보기 전 헨델의 메시아에 관해 먼저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개인 상품을 걸고 인터넷을 통해 헨델의 삶, 메시아를 작곡한 동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연을 보았을 때 가사와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수업 마치고 바로 왔는데도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관람하였습니다. 마침 공연장에서는 많은 이주민과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공연 중 15분 쉬는 시간에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주 근로자 중 본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메시아 내용을 5분 설명하기!'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중국 언어권입니다. 아이들이 잠깐 자기 민족에 가서 메시아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눌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되돌아오는 승합차에서 아이들의 나눔은 풍성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에 대해 많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메시아 대작의 음악성을 이야기하고 2시간 연주 시간이 오히려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헨델이라는 사람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헨델의 메시아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고 멀게 여겨질 것 같은 어른의 선입견으로 아이들을 평가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번 메시아를 관람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_관객 **박승호** 포천 하랑센터 선교사

이번 연주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본인 나라 전통복을 공수하여 입고 참석하신 CCC의 Bridge International의 유학생들, ISF 등 여러 단체도 비슷한 감동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주회가 소망 성도뿐 아니라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각국의 전통복을 입고 국기를 들고 만민이 찬양하는 메시아 연주회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문화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메시아의 감동이 계속되길 바라며 만민에게 오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글 **이현승** (형제)

개인적으로 2023년 한 해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청년플러스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지금의 신앙생활은 저의 신앙 여정에서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평탄하지 않은 삶 가운데 점점 희박해져 가는 신앙은 확신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회의로, 그리고 회의에서 두려움으로, 두려움에서 무심함으로 변해 갔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성과와 보상이 중요했고, 원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성과 인식의 한 측면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이신론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 고백을 해 왔지만 삶에서 실천은 적었으며, 구별됨 없이 외형적으로만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굳어지려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저를 청년플러스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저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매주 청년플러스에서 예배드릴 때, 시작과 함께 부르는 '입례' 찬양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들의 모임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제 마음에는 감사와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참여한 청년플러스의 여름 수련회는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5주 동안 진행된 PLTC 양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감사함을 단순히 개인의 감정으로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지체들과의 나눔으로 확장시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를 소모하거나 소진시키는 자리가 아니었고, 도리어 제 자신을 살리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PLTC 양육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역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고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신론을 계속 연구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를 옹호하기 위하여 연구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전과 분명히 다른 점은 이러한 틀 안에 갇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제가 느낀 변화의 체험과 감사함을 전하며 서로 섬기고 세워 주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방관하시거나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PLTC 양육을 통한 깨달음과 다짐이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르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지체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자, 이번에 PLTC를 수료하신 모든 지체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멘.

국내선교부 '함께 예배하러 가요'

안성 매산교회를 다녀와서

글 **백순권** (집사)

2023년 12월 18일 매산교회에서 42년 동안 시무하신 노성철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은퇴식이라면 멋진 옷차림에 앞쪽에서 축하를 받아야 하겠으나, 평생 섬겨 오신 겸손한 모습 그대로 평범한 옷차림에 뒷자리에서 평상시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셔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은퇴를 하는지도 모를 분위기였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뒷바라지를 하신 사모님도 목사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은퇴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퇴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수줍으셨는지 몇 번을 부르고 나서야 앞자리로 오셨으나, 예배 내내 성도들을 위해 양보하고 뒤에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고, 42년 동안 여러 고생을 겪으면서도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맞아 주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퇴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여느 성도처럼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도우신 이대희 목사님, 엄민섭 목사님, 강일구 목사님, 임태섭 목사, 박정도 목사님 등은 노성철 목사님과 선후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에 감동을 받아 오셨기에, 사랑과 존경을 담은 메시지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노성철 목사님을 처음 만난 강일구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는 말씀을 항상 실천하시며 아이들이 목사님 집을 자기 집처럼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대접하기를 아끼지 않으신 일화를 들려주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을 듬뿍 담아 전하셨습니다.

축도를 맡으신 박정도 목사님도 은퇴식을 축하함과 동시에 노성철 목사님처럼 평생을 다해 매산교회를 아껴 주실 후임목사님이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후임목사님이 결정되시기까지 교회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은퇴식이 끝났지만 노목사님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지체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남에겐 시련으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식을 끝내고 나오면서 머리가 잠깐 신선하게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떠나서 어르신들로만 이루어진, 서울에서는 1시간 거리밖에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빛으로 헌신하신 노성철 목사님의 생애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온전히 행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위에 합리적인 변명으로 왜곡되어 가는 우리 삶 속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소리 없이 알려 준,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 그 자체이셨습니다.

신뢰와 결단

글 **윤 환** (부목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릇으로 신앙생활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싼 가격의 그릇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다양한 그릇 중에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그릇도 아닌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운 것을 씻어 내기 전까지 주인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동일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죄로부터 깨끗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고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 순간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혹여나 더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없고,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없이 자신을 갈고닦아야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릇에게 있어 쓰임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지루한 과정을 인내해야 합니다.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도 연결할 수 있으며,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과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조심하는 삶입니다. 주의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더러운 것을 씻어 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복음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씻고, 목욕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일상의 반복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결단하고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했던 행동을 오늘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없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다. 따분하고 무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가는 은혜가 있으며, 그를 통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릇이라면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릇은 자신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움직이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릇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전적으로 주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위치에 놓고, 주인이 원하는 때에 이동합니다. 그릇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주인의 결정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목적이 있어 그릇을 방치했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했는지 물을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먼지 속에 방치하는지 화낼 수 없습니다. 왜 나만 계속해서 사용하는지 투덜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라고, 저기에 가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화낼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그릇의 삶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결정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며 불신에 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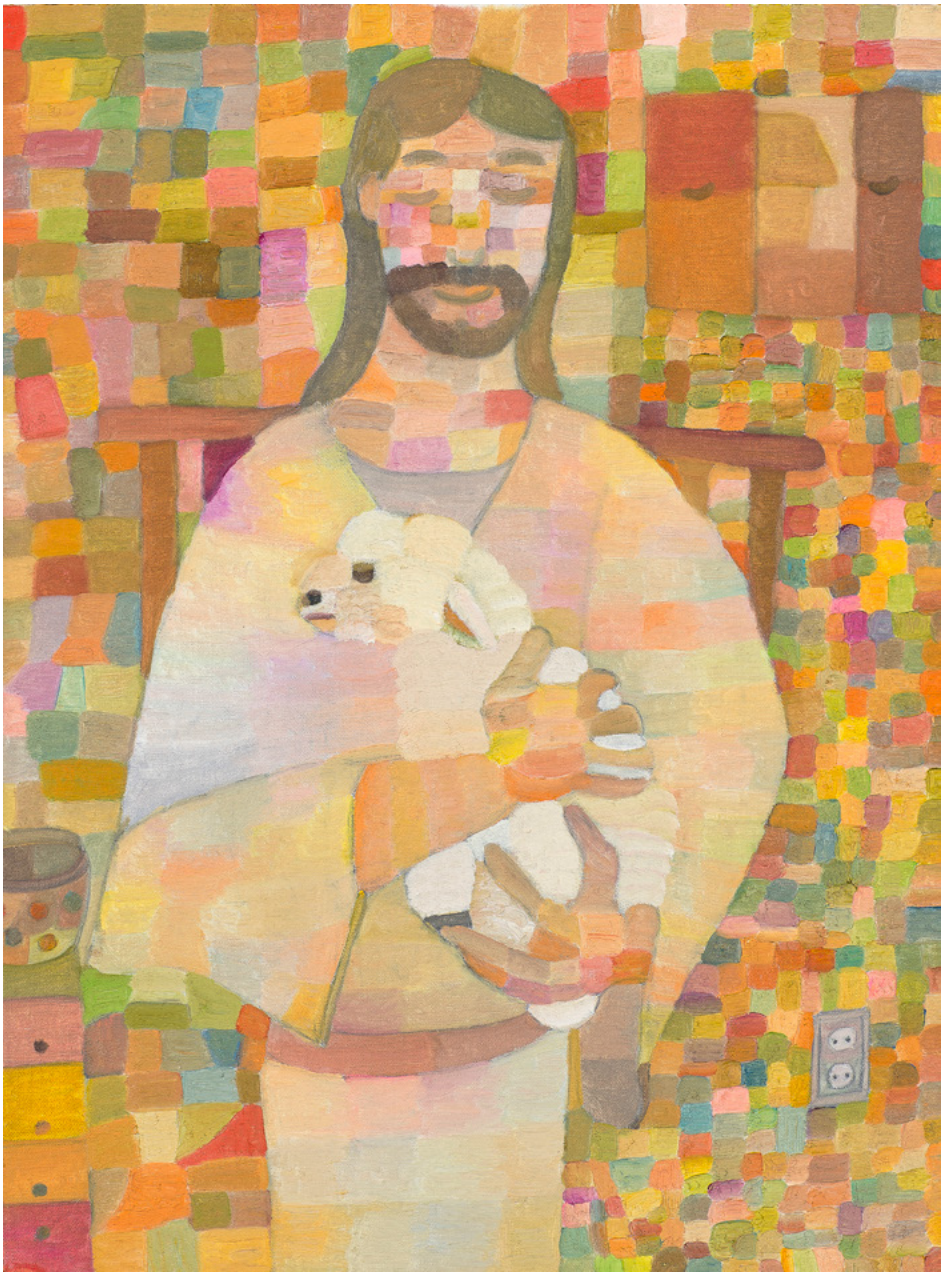
예수님과 어린 양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요한복음 15장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58 X 46 cm
Oil on canvas
2014



헌화이야기 24

1월,
우리의 고백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글 **송미란** (권사)

넓은 들에 익은 곡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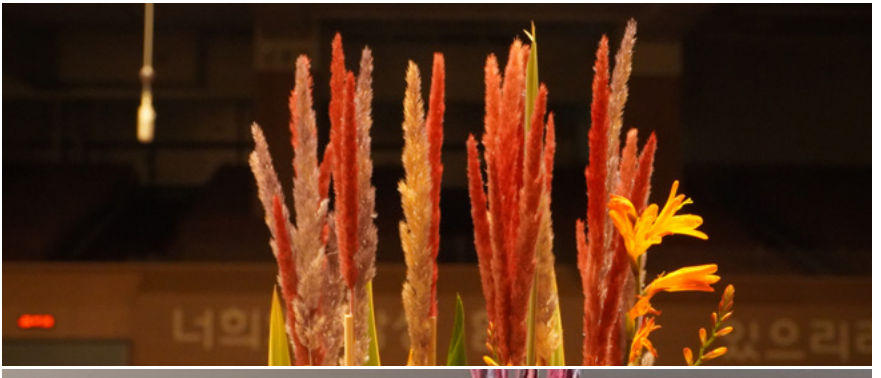
11월 26일 주일

글 **이수아** (권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 62:1

십자가를 바라보는 L자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12월 대림절

글 **예배부 꽃 봉사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배부 꽃 봉사회의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다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봉사회를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조성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희망입니다

글 **홍인종**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새 꿈을 꾸며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편으론 희망찬 새해를 꿈꾸기엔 통계 수치, 경제 지표가 불확실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 2:17)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고통 중에도 여성과 남성, 모든 세대가 꿈을 꾸며 희망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물의 시작을 다룬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가정의 청사진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분리되다', '고립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사람을 지으셨고, 함께 살도록 부부를,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함께함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홀로 살기를 선호합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나 됩니다(2022, 750만 2천). 비혼자가 늘고, 결혼을 해도 자발적 무자녀 부부도 많아지고, 아이를 가지고 싶으나 갖기 어려운 불임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율은 '0.7명 이하'로 세계에 유래 없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2만 가구(약 1,306만명)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혼자 살지만 이에 비례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지용근 외, 2023)에 보면 개인 영역의 첫 번째 트랜드가 "외로운 크리스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외로움 비율이 55%이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챤조차도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 소그룹이 있음에도 충족되지 않는 외로움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하여야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정이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정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대에 가정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과 연관이 있고, 우울증은 자살에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2018년에 고독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일본은 2021년에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각각 임명하며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것,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본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가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시험관 아이나 정자은행을 통해서 낳은 자녀도 생물학적 부모는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자라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낳은 부모가 아니어도 키워 준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성장할 수도, 성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함께해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가정이기에 가정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단순히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나 낙관적 생각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제롬 그루프먼은 그의 책 『희망의 힘』(2005)에서 희망이란 "마음의 눈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때 경험하는 상승 감정"인데 반해서 참 희망은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과 실패의 가능성(중대한 장애물과 깊은 함정)을 직시하면서도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저 나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 감정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필자는 성도의 신앙적 희망에 관하여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믿고, 모든 장애물과 역경 가운데도 반전을 시도하는 태도"로 이해합니다. **희망의 가족은 가족들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꿈을 꾸며 나아가는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1~13).

말세에도 여전히 가정은 희망입니다. 희망의 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외부의 적에 맞서서 같은 편이 되어 싸우는 응원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래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가족family은 '사회의 거대 충격 흡수 장치'이며, 집Home은 '매맞고 멍들은 개인이 세상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곳이고 점점 더 유동성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안정된 유일한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미래의 충격』, 1970). 가족이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

는 흡수 장치이고, 가정은 세상과 전쟁을 치루고 지친 영혼이 돌아와 재충전하고 안정됨을 찾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결혼이 유익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력도 올라가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를 얻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개역), "존중히 여기라"(공동)고 권면합니다(히 13:4).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개역, 롬 4:18),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새번역).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음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며 '가정이 희망입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믿고,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과 역경 가운데도 반전을 시도하는 희망의 태도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십시오. 새해 새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가족이 서로를 향해 응원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희망을 다시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희망입니다.

※ 다음 호부터 가정이 희망이 되는 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땀의 가치

글 **방선기** (목사, 일터개발원 이사장)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사용하던 말 중에 불한당不汗黨이란 말이 있었다. 불량배들이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는 한자를 잘 몰라서 그 말의 원래 의미를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자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었다. 이처럼 불한당의 어원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정상적인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일과 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게 되며, 땀을 흘리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땀을 흘리는 일은 1차적으로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사회에서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일을 의미한다. 잠언에는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잠 28:19)는 말씀이 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 부를 이룰 수 있지만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부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육체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다.

현대 사회는 기술 문명의 발달과 디지털화로 인해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육체적 노동 외에 정신적인 노동을 하거나, 요즈음 많이 거론되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물리적인 땀은 흘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차적으로 땀을 흘리는 일이란 물리적인 땀은 흘리지 않지만 그 이

상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땀을 흘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하는 데 많은 수고가 필요한 모든 일은 땀을 흘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창 1:28), 사람은 그 일을 즐겁게, 신나게,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해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 일할 때 정말 행복했다.** 그가 일하면서 육체적인 땀을 흘렸을진 모른다. 그러나 그가 흘린 땀은 고통과 수고의 땀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의 땀이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이 하는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창 3:19). 이때부터 사람이 흘리는 땀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저주로부터의 회복을 시작하셨지만(골 1:20),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땀 흘리는 수고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골 3:23).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벧전 2:21).

육체노동을 비롯해서 고통이 따르는 일들을 주께 하듯 해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그것을 감당하기에 신체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땀 흘리는 노동은 인생을 통해서 좋은 경험이 되고, 영적으로는 좋은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율법 수업을 하시기보다 목수라는 노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10여 년 전부터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데라는 공동체 교회와 교류를 하고 있다. 그곳을 방문하면서 가장 도전이 된 것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공동체 훈련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점이다. 훈련 과정에는 성경과 신학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남성들은 건축이나 건물 보수, 목공일, 자동차 정비를 한다. 여성들은 부엌 일이나 건물 관리, 빨래나 재봉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중에는 훈련을 마친 후에도 그 영역의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지만 설교자가 되거나 다른 직업을 가

지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런 노동이 필요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든, 설교자든, 다른 직업을 가졌든 혹은 가정주부로 살게 되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에 육체 노동을 필수적인 훈련 과정으로 생각한다.

신학 공부할 때 나도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다양한 노동을 했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한국교회에서는 신학 훈련을 하든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든지, 땀 흘리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육체노동의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만연한 청년 실업을 비롯한 실업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땀의 가치를 조금만 이해하게 된다면 실업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노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고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땀 흘리는 일이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시적인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젊은 크리스찬들이 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2월 셋째 주

신임권사 임직식

갑진년 새해부터 소망교회와 성도를 섬길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지난 12월 10일 주일 4부 예배에서 열렸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전 3:8~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믿음의 신비를 깨달은 97명의 신임권사들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임직식에서 담임목사는 신임권사들을 일일이 호명해 자리에서 일으켰고, 일어난 신임권사들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권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담임목사는 임직을 선포하고 선물로 성경을 전달했다. 신임권사들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주신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는 권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임직식에 함께 참여한 가족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본을 보여 준 아내, 어머니를 축하했고, 앞으로 맡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신임권사들은 내년 1월 1일 신년예배부터 권사로 사역을 시작한다.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신임권사들의 삶에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한다.

12월 셋째 주

하반기 새가족 초청 행사

제직회 새가족부가 하반기 교회 등록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월 26일 오후 4시 40분 친교실에서 열린 '새가족 초청의 날' 행사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성도와 그 가족 110명이 참석했다. 새가족부 차장 장기철 집사의 대표 기도, 류헌조 담당 목사의 환영 인사에 이어 최민영 성도는 신앙의 바탕을 다져준 소망교회 공동체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새가족들의 축하 공연도 있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을 역임한 심준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첼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바리톤 정래종, 은빛나 부부가 '주의 은혜라' 특송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주 안에서 '참된 복음'과 '안식'을 찾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새가족들도 소망교회가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가족들을 대표해 장시영 외 2명의 성도가 김경진 담임목사로부터 수료증과 선물을 받았고, 새가족들은 교회 공동체로의 환영과 초청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전했다. 저마다의 이유로 소망교회를 찾은 새가족들이 소망의 공동체로 보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소망의 말씀

2024 | 01

발 행 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김경래
편집주간 류헌조
편 집 장 하수경
편 집 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 자 인 워크워크
인 쇄 금호인쇄

발 행 일 2023년 12월 30일(통권 145호)
발 행 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 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qtpd@naver.com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3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말씀나눔』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길잡이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 매 처 소망서점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월요일 휴무)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문 의 02)512-0617, 512-9191(내선 148번)